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17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청일전쟁^{淸日戰爭}과 그 문화적 표상^{表象}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목 차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의 상관관계	이 이 화	07
『니시키에(錦絵)』 속의 한·중·일 이미지	김 경 리	17
고승호, 수중 발굴 이야기	편 도 영	27
청일전쟁의 전개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구 선 희	37
『언덕 위의 구름』과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전쟁관	이 복 임	49
이인직 신소설 『혈(血)의 누(淚)』에 반영된 청일전쟁과 아시아주의 담론	서 은 선	61
진순신의 『청일전쟁』이 보여주는 중국의 회한과 조선인식	은 정 태	81

제17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교육일정

주제 청일전쟁^{淸日戰爭}과 그 문화적 표상^{表象}

기간 2015. 6. 5(금) ~ 7. 24(금)

장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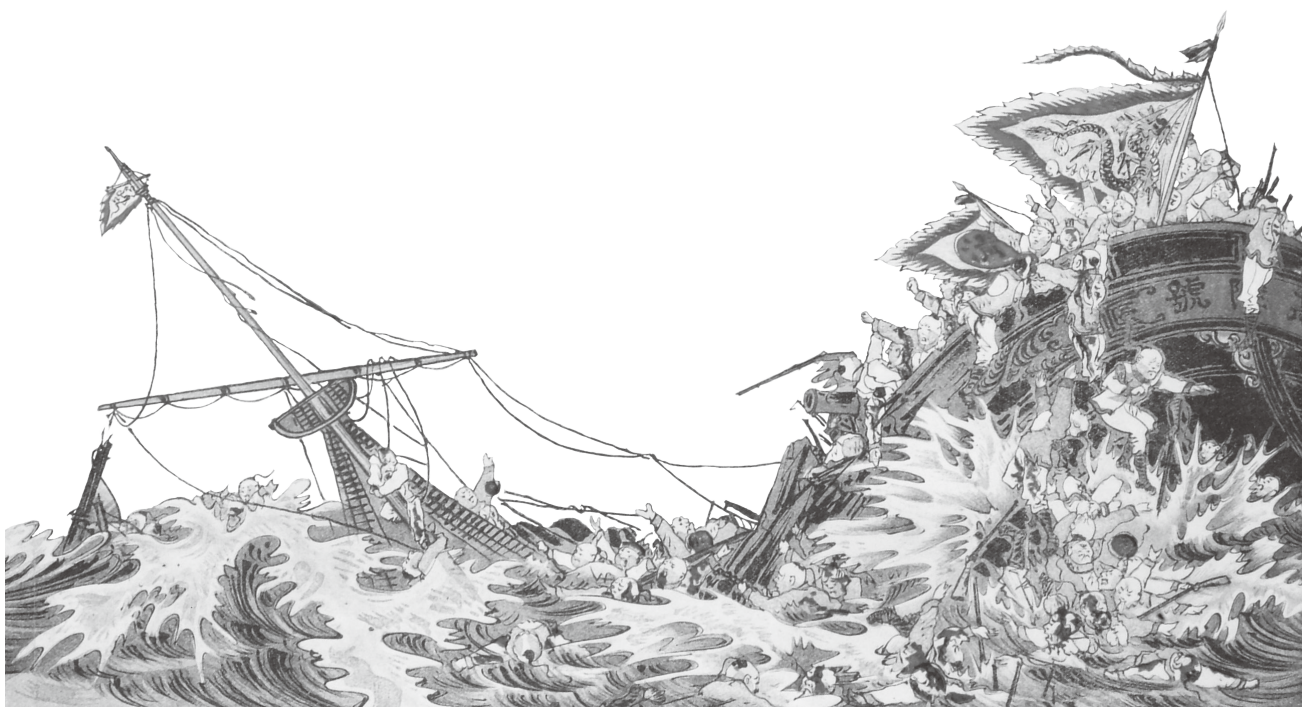
일정

구분	날 짜	강 의 주 제	강 사
1강	6월05일(금)	역사 :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의 상관관계	이 이 화 (역사문제연구소)
2강	6월12일(금)	그림 : 『니시키에(錦絵)』 속의 한·중·일 이미지	김 경 리 (건국대학교)
3강	6월19일(금)	고고 : 고승호, 수중 발굴 이야기	편 도 영 (한국해저탐사연구소)
4강	6월26일(금)	역사 : 청일전쟁의 전개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구 선 희 (국사편찬위원회)
5강	7월03일(금)	소설 : 『언덕 위의 구름』과 시바 료타로(司馬 遼太郎)의 청일전쟁관	이 복 임 (한남대학교)
6강	7월10일(금)	유적 : 조선 속 청일전쟁 (* 답사지 : 경기 안성 일대)	-
7강	7월17일(금)	소설 : 이인직 신소설 『혈(血)의 누(淚)』에 반영된 청일전쟁과 아시아주의 담론	서 은 선 (부경대학교)
8강	7월24일(금)	소설 : 진순신의 『청일전쟁』이 보여주는 중국의 회한과 조선인식	은 정 태 (역사문제연구소)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의 상관관계

－ 동아시아의 정세를 바꾼 사건

이 이 화(역사문제연구소)



청일전쟁과 농민전쟁의 상관관계

－ 동아시아의 정세를 바꾼 사건

이 이 화(역사문제연구소)

1. 외세의 개입과 열강의 준동

- 1) 청나라의 파병과 몰락
- 2)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

2. 청일전쟁과 열강의 준동

- 1) 일본군의 일방적 승리
 - 2) 조선에서 일본군의 준동
 - 3) 열강의 군사 침투와 견제
-

1. 외세의 개입과 열강의 준동

농민군이 승승장구로 전주까지 점령하자 열강들은 이를 예의주시했다. 특히 일본과 청나라는 초기부터 농민군의 동향과 폐정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암중모색하고 있었다.

1) 청나라의 파병과 몰락

청나라는 홍계훈의 장위영병에 서방결과 군인 20여 명 그리고 대포 따위 무기를 앞세우고 따라붙게 하였다. 그들은 홍계훈 남정(南征)부대에 끼어 있으면서 농민군의 전략을 분석하고 또 정보를 수집해 서울에 군림하고 있는 원세개에게 보고했다. 이런 과정에서 청군이 전주성에 들이닥쳤는데 이때 농민군으로서는 중앙 관군에 청군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전주성이 함락된 뒤,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원병 요청의 글을 보냈는데 그 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저희 나라 전라도 관할에 있는 태인·고부 등 고을에 사는 백성들은 습성이 사납고 성질이 교활해서 평소
소에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컬었습니다. 근래에 동학 교비(敎匪)들이 무리 모여 명을 모아 십여 고을을
공략하고 또 북쪽으로 전주성을 함락했습니다. …… 아직도 발호가 계속되어서 중조(中朝, 청나라)에 근
심을 끼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임오군란·갑신정변 때의 저희 나라 두 차례 내란에 모두 중조 병사의
힘을 입어 평정하였습니다.¹⁾

이것은 이 해 5월 10일자에 보낸 것이다. 원병을 요청하면서 자기 백성을 사납다고 하였고 또 스스로 치욕스
런 임오·갑신의 청병 개입을 은의로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해서 청 해군장수 정여창(丁汝昌)은 군대를 이끌고 해군함정 편으로 인천으로 들어와 서울의 청상(淸
商)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붙였고, 섭지초(葉志超)는 산둥·직예·성경(盛京)의 육군 1천 5백여 명을 이끌고 아
산 둔포로 상륙했던 것이다. 이때 이홍장은 "한성에서 몸조심할 것이며 일인과 가볍게 전단(戰端)을 열지 말라"
고 당부했던 것으로 보아 일본과의 접전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²⁾

이에 조정에서는 이중하(李重夏)를 접반사 겸 운량관(接伴使兼運糧官)으로 삼아 이들을 접대하고 그 경비책
임을 지게 했다. 임진왜란 때나 그 후의 원병이 올 적에 그 경비는 모두 우리 측에서 대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
서 이때도 양곡·떨감·고기류 그리고 운반기구·잡비까지 우리 측에서 조달하였다. 그들은 때로 대접이 소
홀하다거나 물품이 부족하다고 호통을 치기 일쑤였고 마을로 올라가 노략질을 일삼기도 했다.

어쨌든 농민군이 전주에서 물러난 후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남은 비류들이 대군이 하륙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달아나 흩어졌습니다. …… 대군이 한 번 이름에 큰 도둑을 곧바로 제거하였으며 싸우지 않고 이겼으니 신
무(神武)가 밝고 뚜렷합니다"³⁾라는 보고를 올렸고, 현지 지휘관 섭사성(聶士成)은 이때 농민군에게 공갈 협박
을 뇌까린 이른바 효유문을 보내는 정도로 그치고 싸움 한번 붙지 않았다.

청군은 일본군이 서울에서 횡행할 적에도 이홍장의 당부 탓인지, 그저 멀건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6월에 인천으로 들어온 청의 정해창군은 일본군과 수원 앞 풍도(豊島)에서 부딪쳐 여지없이 깨졌고 이어
아산에서 상륙하여 공주에서 농민군의 동정을 살피던 섭지초군은 성환과 평택에서 또한 일본군에 여지없이
깨어졌다. 이들은 또 평양에서도 일패도지했다. 조선 정부에서 그렇게 믿고 아양을 떨었던 청군은 이 정도 힘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청군의 주력부대가 북쪽으로 달아난 뒤 패잔 청군은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때로는 옷을 갈아입고

1) 「근대중국외교사자료집요」, 494쪽에 나옴.

2) 「오하기문」 수필에 나옴.

3) 「근대중국외교사자료집요」, 497쪽에 나옴.

상인차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이나 거지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선의 관가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미 친일 개화파의 하수인이었던 조선의 관리들은 그들을 냉대했다.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동학군에 투항하기도 했고 남은 무기를 동학군에 건네주기도 했다.⁵⁾

2) 일본군의 경북궁 쿠데타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약장수, 관광객 차림의 밀정들을 투입해서 그 진행과정과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특히 이때 일본의 정보수집망은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일본의 정보수집

하나의 일본의 참모본부에서 이지치 코오스케(伊地知幸介) 소좌를 부산에 파견하여 조선주개 일본공사관 와다나베 테츠타로오(渡邊鐵太郎) 대위 등과 제휴하여 정보수집에 종사케 한 것이다. 이 두 정보원은 종래의 밀정들인 약장수·관광객을 지휘하여 전라도 일대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동정을 살폈다.

또 하나는 해군의 지휘에 의해 측량선·상선을 가장하여 해안일대를 돌아다니며 아무데나 상륙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청군의 동정을 엿보기도 했다.⁶⁾

이와 달리 일본 민간단체로 낭인의 집합체인 현양사(玄洋社)의 천우협(天佑俠) 패들은 부산에 상륙하여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며 농민군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 다케다 노리시(武田範之),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스즈키 다카미(鈴木天眼) 등은 계속 경상도 일대를 거쳐 전라도로 접근해 왔다. 그들은 부산의 오사키 쇼키치(大崎正吉)의 법률사무소를 거점으로 정보를 수집해 오다가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농민군을 이용하여 친일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짜기도 했다. 이들은 끝내 집강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봉준을 만나기에까지 이른 다.⁷⁾

(2) 일본의 출병과 내정개혁 요구

일본은 청으로부터 조선파병의 연락을 텐진조약에 따라 접수하고 이어 대본영(大本營)을 설치하여 "일본 거류민과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식 출병했다.

실제 당시 조선의 여러 곳에서는 일본 상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다. 농민군이 법성포에 들어갔을 적에 한

4) 「찰이전존안(札移電存案)」(규장각) 10월 10조에는 이들이 공주감영에 와서 구원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보고내용이 있다.

5)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2차봉기 때 섭사성(攝士成)이 거느린 청군 5백여 명이 농민군에 투항하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주었다고 기록하였으나 이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6) 박종근(朴宗根), 「제1장 갑오농민전쟁과 일본군의 침략」,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참고.

7) 「현양사사(玄洋社史)에 나옴. 한상일(韓相一)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 까치, 1980.

양호의 일본군을 구타한 적이 있었고, 개성에서도 일본 상인을 잡아다가 족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따위의 일본인 구축운동이 연달아 일어났다.⁸⁾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실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아무튼 일본군은 1894년 5월에 들어 약 5백여 명이 인천에 상륙한 것을 시발로 4천여 명이 넘는 병력이 침입해 들어왔다. 이들은 두 갈래로 조선에 상륙하고 있었는데 한 갈래는 인천, 또 한 갈래는 부산을 통해서였다.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곧 서울로 들어왔다. 전주화약이 맺어져서 출병의 구실이 없어지자, 조선정부에서는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물론 이는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더욱이 이때 청군 측에서도 전주화약이 맺어져서 농민군에게 효유문의 이름으로 회유·공갈만 일삼으면서 직접 전투를 벌이지 않고 있었다.

일본군은 대본영의 방침에 따라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청·일 공동 철병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의 교섭일 뿐, 실제 그들은 친청 민씨정권 대신 친일 개화정권을 수립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는데 그 명분은 "조선정부는 난민을 평정시키지 못하면서 이웃 나라를 번거롭게 하였다는 구실로 청국정부와 협의하여 내정개혁을 조선정부에 권고할 것"⁹⁾이었다.

그들은 개화파의 정치적 지향을 일부 수렴하여 이른바 내정개혁안을 조선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른바 갑오개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이었기에 그들은 경복궁 점령이라는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3) 경복궁 점령과 쿠데타

일본군은 조선정부에 절교서를 보내고 인천에 있던 혼성여단을 서울에 투입시켰다. 그리고 남산의 왜성대(倭城臺)에 포 여섯 문을 설치했다. 왜성대에서는 경복궁이 한눈 아래 내려다보였고 대포를 명중시킬 수 있는 요지였다. 일본군은 이어 서울 주변에 포를 설치하고 종로에도 포를 설치, 시민들을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그들은 한강의 수로를 장악하고 또 서울로 들어오는 육로에 통제를 가했다. 또 용산을 주요 거점으로 군영을 설치하고 남쪽의 아산으로 통하는 길과 북쪽의 의주로 통하는 길로 진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는 연일 완전무장한 상태로 서울 시내를 행군하면서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또 궁성 앞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벼슬아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은 놀라 허둥대고 있었다. 그들은 경복궁을 완전 포위하여 국왕의 탈출을 막았고 경복궁을 점령한 뒤에 흥선대원군을 앞세우고 입궐할 병력도 배치하였다. 6월 21일 행동개시를 앞둔 전날 밤, 서울의 거리는 매우 소란스러웠다. 이런 기록이 전해진다.

8) 「각도등록존안(各道謄錄存案)」(규장각) 등 참고.

9) 杉村濤의 「재한고심록(在韓苦心錄)」 참고.

비를 무릅쓰고 운현궁의 저택으로 잠행하는 자도 있었고 밀서를 가지고 일본공사관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 장사(壯士)를 모으는 자도 있었고 …… 만리창(용산에 있는 일본군 주둔지역)에서 급하게 온 사자도 있었고 우의(雨衣)에 모자를 깊숙이 쓴 채 왕래하는 무인도 있었고 등불 든 사람을 수행하는 병사도 있었다.¹⁰⁾

끝내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자정, 일본군은 경복궁의 모든 문을 폭약으로 파괴하거나 부수고 밀려들어갔다. 농민군과 싸우던 장위영병은 광화문을 지키고 있다가 쓰러지거나 도망쳤다. 또 평양을 지키던 기영병(箕營兵)을 차출하여 장위영병(강화도 수비병)·경리청병(남한산성의 수비대)이 남쪽으로 내려간 뒤 왕궁을 지키게 했는데, 이들은 궁 안에서 싸우다가 전투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모두 통곡하며 총통을 부수고 탈출했다.

이렇게 해서 쿠데타는 마무리되었다. 국왕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고 흥선대원군은 이들에 업혀 경복궁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개화파가 정권을 틀어쥐었던 것이다.

2. 청일전쟁과 열강의 준동

1) 일본군의 일방적 승리

일본은 쿠데타에 성공한 뒤 7월 26일(양력 8월 26일) 조선괴뢰정부와 이른바 양국맹약(兩國盟約)을 맺었다. 그 내용은 평양의 청일 대회전을 앞두고 조선이 일본군에 협력한다는 것이요, 또 주둔 일본군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농민군 재봉기 따위의 내란이 있을 적에 일본군이 관군과 협력하여 토벌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7월 선전포고가 나오고 이어 평양에서 대회전을 할 적에 조선에서는 토지·건물·전신 따위의 공용시설이 징발되었고, 인부·우마·식량이 제공되었다. 이때 일본의 군인·군속 약 20만 명이 투입되었는데 이들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제공되었다 한다.¹¹⁾ 이제 청나라에 제공되던 물자가 일본에 제공되어 우리의 백성들은 더욱 굶주리게 되었던 것이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일본군은 만주의 요동과 산둥반도 일대를 석권했다. 그리하여

10) 菊地謙讓의 「조선왕국(朝鮮王國)」에 나옴. 박종근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11) 박종근, 앞의 책, 「제2장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개전」에 나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宗主權) 주장은 끝을 맺었다. 청나라는 전통적 사대관계를 일본 및 서구열강에 대해 '종주권'이라는 구실을 붙여 조선의 외교에 간섭하고 이와 함께 조선 국내의 이권을 농락하려 했다. 이때 일본은 '조선의 완전독립'을 보장한다고 떠벌려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빼앗고 이어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을 마음대로 주무를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불평등 관계의 무역 따위 경제 침탈은 고사하고라도 이 땅의 침략을 수행하면서 그 경비마저 몽땅 이 땅의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짜낼 수 있었다. 참으로 가당찮은 수법이였다.

일본은 전승의 대가로 요동을 할양받으려 했으나 러시아 영국 등 열강의 간섭으로 요동대신 대만(타이완)을 할양받았고 많은 배상금도 받아냈다. 이리하여 대만이 조선보다 먼저 식민지가 된 것이다.

2) 조선에서 일본군의 준동

청일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본군의 준동은 끝이 날 줄 몰랐다. 그들은 '양국맹약'에 따라 실제 이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쥐고 관군을 부렸으며 필요할 적에는 조선에 모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농민군이 집강소를 통해 반봉건의 불길을 당긴 기간인 이 해 8월에 경상도에서는 2~3천 명의 모병을 단행하여 참병으로 이용하였고, 일본군은 경상·경기·황해·충청도 그리고 평안도·강원도에 드나들면서 농민군의 토벌에 나섰다.

7~9월 사이 일본군이 가장 적게 침투한 지역은 완전히 농민군의 손 안에 있는 전라도와 농민군의 봉기가 없었던 함경도뿐이었다.

이때 일본군의 침투경로는 크게 두 길이 있었다. 하나는 평양에서 내려와 황해도·강원도 그리고 경기도로 침투해 와서 충청도로 내려온 것이요, 다른 하나는 부산에서 상륙하여 대구·칠곡을 거쳐 새재를 넘어 충주 일대로 퍼진 것이다. 한편 부산에 상선 군함 등을 배치해 남해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했다.

부산에서 상륙한 일본군은 대구로 들이닥쳐 선화당을 차지하려고까지 했고 달성에 주둔해 있으면서 농민 봉기를 진압하고 나섰다. 또 부산에서 상륙한 일본군의 일부는 남해를 돌아 진주·하동으로 진출했다. 남쪽으로 진출한 일본군은 여수 등 이곳의 농민봉기를 진압하면서 농민군의 후방을 압박했다.

그리고 일본의 해군함정은 측량선 또는 상선을 가장하여 서해와 남해에 출몰하며 노략질을 일삼았다. 이 해 8월 남해의 고금도에는 일선 20여 척이 한꺼번에 출몰한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주변 바다에는 무시로 출입하며 육지의 동정과 서구의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3) 열강의 군사 침투와 견제

농민군이 전주에 입성할 무렵부터 서구열강의 배들도 속속 파견되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의 흥내를 내어 외교관, 거류민 보호라는 구실을 내세웠다. 특히 영국은 청일전쟁 때 그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고 러시아는 동해를 중심으로 일본군의 동정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 해 8월, 인천 앞바다 월미도에는 영국 군함 7척을 비롯하여 미국·러시아·프랑스·독일·스페인 배들이 일본 배와 뒤섞여 수십 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개항 이후 산림벌채·전기가설·광산개발 따위의 이권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준동했고 일본은 이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권을 얻기 위해 때로는 밀약을 맺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고 때로는 간섭을 벌이는 따위의 방법을 적절히 써먹었다.¹²⁾

다만 러시아만이 철저히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며 뒷날을 도모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동해안을 통해 남하정책을 고수하고 일본을 견제하면서 청·일 두 나라가 힘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판을 구경하면서 교활한 사냥꾼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러시아는 실제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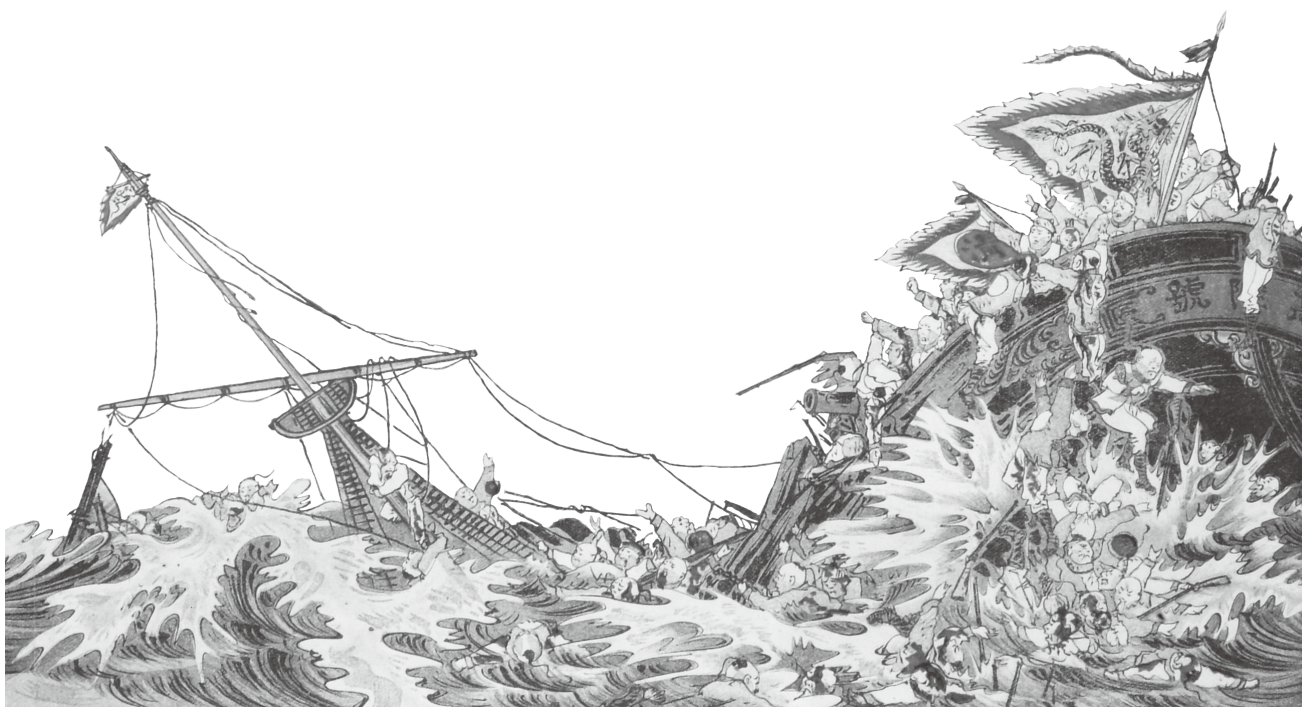
이렇게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국내 정치세력은 개편되었고, 청일전쟁으로 동양정세가 변화되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은 일본을 견제하였고 일본은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했다. 또 중국에서는 1894년의 청일전쟁을 중일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이 중일전쟁이 만주사변 상해사변을 거쳐 1945년 2차 대전의 종결로 끝났다고 본다.

12) 『각도등록존안』(규장각), 『관초존안(關草存案)』(규장각), 『연서각관관초(沿徐各官關草)』(규장각) 등의 자료종합.

『니시키에(錦絵)』 속의

한 · 중 · 일 이미지

김 경 리(건국대학교)



『니시키에(錦絵)』 속의

한 · 중 · 일 이미지*

김 경 리(건국대학교)

1. 전쟁과 니시키에

2. 사실성의 담보

3. 강요받는 시선

- 1) 문명의 일본
 - 2) 국가 부존재의 조선
 - 3) 야만과 멸시의 청국
-

1. 전쟁과 니시키에

메이지정부는 내부적으로 보신전쟁(戊辰戰爭)과 세이난전쟁(西南戰爭)을 거치면서 국민통합과 국가정비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메이지 20년대에는 제국주의적 근대화 담론을 통해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일본 국민, 일본국가라는 내셔널리즘이 발현되고 '청과 조선의 문명화'라는 청일전쟁의 중심에 선 메이지천황이 강력한 군주의 표상으로서 가시화되었다. 이와 같이 제국일본에서 점진적으로 고양되는 내셔널리즘은 니시키에(錦絵), 니시키에신문(錦絵新聞), 정론지(政論誌), 사진과 같은 매스미디어로 대리 표상되었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색채로 정보를 알기 쉽게 이미지화 한 니시키에는 폭넓은 독자층과 지역성, 저가, 대량생산, 정보의 균질화와 같은 다양한 판매요소를 갖추어 정보파급력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물론 당시에도 존황애국(尊皇愛國) 배양과 국가사상 고취를 위해 역사화가 활발하게 제작되었다.¹⁾ 그렇지

* 이 글은 줄고, 『시각이미지를 통한 근대일본의 표상 연구- 개항기부터 메이지시대까지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니시키에 속의 청일전쟁」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佐藤道信, 『〈日本美術〉誕生 近代日本の「ことば」と戰略』, 講談社, 2006, p.47.

만 내셔널리즘에 기반하는 역사화 못지않게 청일전쟁을 그린 청일전쟁니시키에(清日戰爭錦絵)도 주제선택과 표상방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이 국가와 표리일체가 되는 국가의식이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다. 더불어 시대를 읽는 니시키에시(錦絵師)의 세계관과 시대관이 투영되었기에 단순한 정보지를 넘어서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미지로 재해석된 전쟁화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기적으로 사양길이었던 니시키에는 내셔널리즘의 표상인 청일전쟁이 새로운 화제(畫題)로 채택되면서 수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한모토(版元)의 판매 전략과 근대화된 일본의 총체적 위상을 프로파간다로 활용하고자 하는 메이지 정부의 전략적인 미디어 수단으로 부상했다. 특히 서구제국과 동일한 식민지 획득의 과정을 상상과 과장, 풍자라는 니시키에만의 독특한 화법과 문명의 일본, 비문명의 청과 조선이라는 이분법적 표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오직 국민에게 '보여져야 할' 내용과 국민이 '보고 싶은' 내용만을 수렴하는 매스미디어의 가치를 담았다.

1894년 8월 1일자 요미우리신문에는 "일청전쟁 돌발로, 니시키에 업자가 내무성에 출판허가 속결을 요망했다."²⁾는 기사, 1894년 8월 14일자 "일청개전 이래로(중략) 니시키에 도매상이 크게는 판본을 열 개 또는 열두 가지 종류를 출판하여 팔림새가 대단하다. 그 중에는 7,500장을 모두 판매한 사람도 있어서 이익이 엄청나다."라는 기사는 물론 영국의 주간 삽화신문『더 그래픽(The Graphic)』(1894년 11월 24일자)에는 당시 니시키에를 사보기 위해 에조시야(絵双紙屋) 앞에 몰려든 일본국민들의 모습을 그린 삽화가 게재되기도 했고 1895년 효고(兵庫)에 있던 라프티오 한 역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³⁾

승리의 보도가 도착할 때마다 니시키에 판화가 엄청나게 찍혀 팔렸다. 싼데다가 볼품도 없었고 대부분은 화가의 상상도(想像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승리에 취해있을 때에는 그 전승기분을 고조시키는 데는 안성맞춤이었다.

위와 같은 기사 이외에도 판매촉진을 위해 니시키에 발매를 홍보하는 신문기사⁴⁾가 빈번히 광고로 게재되기도 할 만큼 당시의 니시키에의 역할과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2) 『読売新聞』DB, 1984년 8월 1일 기사. 니시키에 출판은 먼저 이것을 판각 인쇄하여 내무성에 신청하고 일주일 지나 발매하는 것이지만 일청사건(日淸事件)이 일어나 각각 그 발매를 서두르기 위해 (중략) 니시키에 허용이 빨리 결정되도록 청원하여 빨리 판매하려는 협의 중에 있다. 광산으로 유명한 모 호상(豪商)이 여기에 힘을 써서 한 잡지의 부록으로 니시키에를 발매하려는 계획이 있다. 2014, 10, 9 재확인.

3) 丹尾安典·河田昭久編, 『イメージのなかの戦争』, 岩波書店, 1996, p.10.에서 재인용.

4) 요미우리는 1888년부터 니키시에 관련 소식을, 1892년 2월에는 니시키에의 출판 금지, 그리고 1894년 6월부터 청일전쟁 관련 니시키에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8월은 청일전쟁 니시키에 판매 개시를 알리는 등, 니시키에의 발매와 내용, 판매금지까지 보도했으며 에조시야 도매상이 벌어들인 돈을 군비로 헌금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하다.

2. 사실성의 담보

사실성을 담보 받은 전쟁터의 전황사진은 대부분 육군 사진반, 외국 기자가 촬영했고 차별적 선택을 통해 일본 국내유통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이 접하기 쉬운 보편적인 정보원은 니시키에였고 더불어 국가와 전쟁이라는 내셔널리즘을 적극적으로 이미지화한 니시키에 판매는 증가일로였다. 이와 같이 판매량이 급증하는 니시키에는 정보원을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했다. 대부분의 니시키에 내용은 촬영된 사진의 모사(模寫), 역사적 이야기(物語)의 풍자, 신문기사의 재현, 다른 판화물의 변형과 복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청일전쟁 당시에 종군기자 개념이 없었던 탓에 일반 신문기사와 문사, 화가들이 이미 전투가 끝난 장면만을 그려낼 뿐이었다. 병사의 휴식, 이동, 포로, 시체, 점령지, '후의 원망(遠望)의 모습'과 같은 무미건조한 내용은 강력한 내셔널리즘 용출에 어떠한 자극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화가들이 화염이 쏟아지는 전쟁터 한 구석에서 전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현재성을 보여주는 것만큼 보도매체의 사실성 확인은 없었다. 전쟁터를 촬영한 사진을 모사한 그림, 그리고 전쟁터의 화가로 자신을 니시키에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대리만족 요소를 충족시켰다.

특히 3매 연속시리즈의 대화면 속의 이야기, 근대화된 군 장비, 화염 속에서 활약하는 육군, 파도치는 바다 속에서도 굳건한 해군, 승리의 순간만을 극적이며 과장되게 표현한 화면구도는 내셔널리즘이라는 정치적 메시지의 알레고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다.



大日本帝國萬萬歲。
成歡襲擊和軍大之圖, 1894년

물론 니시키에도 1875년의 신 출판조령(新出版條令)에 의해 일반서적과 같이 출판년월일, 화작자(畫作者), 출판자의 주소와 이름을 명기하게 되면서 검열체계가 사라졌지만 현재 국립국회도서관에 '내무성 검열완료(內務省檢閱済)' 또는 '내무성 검열허가(內務省檢閱許可)'라는 확인 표시가 있는 작품이 6종류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전황보도라는 특별한 사항이 적용된 것 같다.

3. 강요받는 시선

1) 문명의 일본

제국일본의 식민지 획득을 정당화하는 이미지 생산은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삼한정벌 신화⁵⁾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재해석하는 방법이었다. 특히 정한론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진구황후 신화는 삼한을 지배하여 일본의 국제적인 지배 위치를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서구열강의 식민지 위협을 회복하고 청과 조선침략에 대한 적합한 표상으로서 차용되었다.⁶⁾ 그렇지만 아시아주의로 포장한 일본의 제국적 침탈에는 정비된 국가체제와 근대화 된 군대, 그리고 최상층부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천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메이지천황은 1872년부터 1885년에 걸쳐 6회에 이르는 대규모 순행(巡幸)을 실시했고 청일전쟁 개전 이후 히로시마대본영에서 7개월 동안 거주한 이후 도쿄 신바시역에 도착하는 근대적 지도자의 모습과 함께 강력한 제국적 군주의 표상으로 등장했다. 신바시역의 전신상은 청일전쟁 당시 일본병사의 평균 신장이 154센티미터였음에도 천황은 물론 일본병사들은 니시키에 속에서 서구적인 신체의 정형화된 황군(皇軍) 이미지를 반복 재현했다. 이는 메이지정부가 내세운 부국강병의 강병(強兵)은 강건한 육체와 근대 병기 조정법을 습득할 수 있는 학력 소유를 의미했다. 또한 전통복장으로 앉아있는 소극적인 청과 조선의 이미지와 극적 대비를 이루면서 근대적이고 문명화 된 일본인의 이미지로 고착화 되었다.



凱旋還幸新橋通御, 1895년

그러나 청일전쟁니시키 화면마다 천황의 이미지를 실을 수 없기에 '일본'이라는 내셔널 아이덴티티 상징으로 욱일기와 소나무를 등장시켰다. 욱일기, 일장기, 소나무와 같은 상징 코드는 가독성이 높은 화면 1면에 제목과 함께 또는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극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이미지 수용에 편리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전쟁을 벌이는 궁극적 목적인 제국의 영토 확장이라는 대리표상은 니시키에 속의 지도로 대치되었다. 통치 권력의 특정양식과 관련하여 영토를 개념화⁷⁾ 한 지도는 그곳에 표시된 국가가 민족과 문화가

5) 몽고군의 습격 후에 만들어진 『하치만구도군(八幡愚童訓)』에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이 기록되어 있다. 즈카모토 아키라 씨는 에도시대 민중 축제나 설화 속에서는 아즈미노이소라가 도깨비로 변하고 기온마즈리(祇園祭り)의 야마보코(山鉦)에서는 진구황후의 출병을 도깨비 퇴치와 관련지어 항복한 도깨비=조선인이 공물을 바치는 설화로 변했다고 지적한다.

6) 와카쿠와 미도리 『전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 언어학과 옮김,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사, 2007, p.445.

7) 와카바야시 미키오·정선태 옮김, 『지도의 상상력』, 도서출판 산책터, 2002, p.251.

일치한다는 편견,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깨워준다.⁸⁾ 국토를 대상화하여 영토상실로 이어지는 식민의 위기감을 획득해 나가야 할 제국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인지시키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은 조선과 청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는 범위로 의미 지워졌다. 이에 따라 국민을 전쟁의 관람자로 참여시키기 위한 간접적 방법으로 첫째 국민개병이라는 틀 안에 히로이즈(heroism)를 부각시켰다. 국가를 위해 군인의 전의를 충맹미담(忠猛美談) 속의 '충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치환시키고 국정심상소화 수신서 개편에 따라 '용기', '천황폐하를 위하여'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켰다.⁹⁾ 또한 '대승리'와 같은 글귀가 새겨진 구호품, 노획품 종람소 관람, 청국함대 진엔호 관람과 같은 이미지를 단독적으로 구체화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에 대한 동일한 경험을 소유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광고탑 역할을 해냈다.¹⁰⁾

2) 국가 부존재의 조선

청과 조선의 문명화라는 명분론 하의 청일전쟁니시키에 속에서 조선은 식민지 획득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타자 성 조차 박탈당한 공간으로 파악되었다.¹¹⁾ 일본이 1894년 8월 1일 청일전쟁을 선전포고할 당시 제출한 선전조칙에 관한 각의서에서 전쟁 상대국을 '청국 및 조선국'에서 청국 일국(一國)으로 초안을 수정한 상태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전국에서 조선을 제외시켰다는 점이다.¹²⁾ 이와 같이 국가 부존재적인 멸시의 시선은 일관되게 정치가, 문사, 신문사설은 물론 시각적 인지도가 가장 탁월한 니시키에 속에서도 일본과 청국의 획일화된 전투의 반복으로만 이어질 뿐이었다. 조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임에도 전투를 벌이는 조선병사는 은닉되고 승리한 일본군을 맞이하는 개선팔면, 한, 청, 일 삼국 회담에 무력한 정치인만을 등장시켜 자국 영토의 식민화에 대한 위기감조차 표현하지 않았다. '일청한담판지도(日淸韓談判



之圖)'와 '조선경성오토리공사대원군을 호위(朝鮮京城大鳥公使大院君ヲ護衛ス)'를 보면 당시 조선이 국가적 힘의 표상을 잃을 수 있다.

日淸韓談判之圖, 1894년

8) 니시카와 나가오·한중구/이목웁김,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1, pp.19~20.

9) 용감한 병사 시로가미의 미담 『勇卒白神氏之美談』, 1895년

10) 『大日本大勝利分捕品縦覽之圖』『日本帝國陸軍牙山全勝凱旋之圖』『日本兵大勝利祝宴を開之図』『横須賀軍港鎮遠號觀覽之圖』 등이 있다.

11)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 新曜社, 2004, p.46.

12) 大濱徹也, 『庶民のみた日淸・日露戦争』, 刀水書房, 2003, p.24.

삼국 회담에서 조선은 일본과 청 사이에 존재하는 지정학적 위치처럼 중앙의 원경 뒤에 작게, 일본과 청은 테이블 좌우의 근경에 크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아래 그림의 1면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상징인 오토리공사와 육일기, 대원군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치밀한 구도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토리공사는 전진하는 위치, 오토리공사보다 근경 중앙에 대원군, 그리고 둘 사이에 육일기를 배치하여 마치 대원군이 육일기를 들고 가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미지를 조작함으로써 조선과 일본의 국가 간 위상을 노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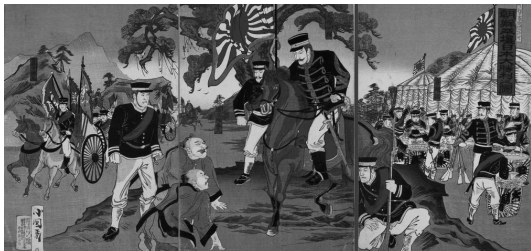


朝鮮京城大鳥公使大院君ヲ護衛ス, 1894년

더불어 아산, 성환, 경성, 평양의 지리적 요충지에도 조선을 표상할 주체적인 이미지는 소거되어버리고 없다. 전통복장에 손을 넣은 채 일본의 강한 의사표현에 놀라거나 수궁하는 모습, 일본군을 위한 탐정 모습과 같이 수동적이다. 오직 변발이라는 두발로만 청국과의 변별력을 가질 정도로 국가 부존재의 멸시감으로 가득 차 있다.

3) 야만과 멸시의 청국

청국은 조선과 달리 야만이라는 멸시로 일관되어 있다. 무력하고 야만적인 청국이미지는 이미 메이지 10년 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찬찬보즈(ちゃんちゃん坊主)¹³⁾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일본 내지에서 찬찬보즈비누와 같은 상품이 등장하고 청국인을 짱꼴라, 돈병(豚兵), 돈미(豚尾)와 같은 비속어로 불렀다. 이와 같은 멸시감이 전쟁터에서는 전근대적인 전통복장, 변발, 구식무기 창, 부상자, 살려달라고 두 손 모아 비는 비참한 포



로, 머리 잘린 시체 그리고 땅에 떨어진 황기(黃旗)로 대변되었다. 특히 전쟁터에서 국가로 표상되는 국기, 황기는 일본 병사에게 찢어지고 짓밟힌 채 일본군의 완벽한 승리를 반복, 재생산하는 원천이 되었다.

朝鮮平壤日本大勝利之圖, 1894년

13) 그림이 들어간 풍자잡지인 '마루마루친분(團圓珍聞, 1877년 3월 14일 창간)'의 1879년 2월 22일자 제 96호에서 그 해 3월에 강행된 오키

이와 같이 오염과 불결, 전근대적인 신체와 복장에 대한 인식을 민도가 낮다는 야만으로 귀결시켜 일전승(一戰勝)마다 문명국 일본이 징벌한다는 관념을 생성해 냈다.¹⁴⁾ 이로 인하여 신체와 복장이 전통에 속박된 청과 조선의 야만 이미지는 근대적 신체비율과 복장, 군장비로 정형화된 일본군과 더욱 대비되었다. 전통복장 안에 손을 감추고 앉아 있는 구도는 정제된 수동성의 표현이며 아래 90도로 허리 굽힌 평루창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 속에 갇힌 손은 공손함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 스스로 조아리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에 반면 일본은 실제와 달리 서구 형 체격, 두발을 버틴 자세로 손을 내밀어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지휘관, 적극적으로 진격하는 역동적인 병사 모습으로 주체적인 일관성을 엿보이게 했다.



威海衛陷落北洋艦隊提督丁汝昌降伏ノ図,
연도미상

또한 제목도 '일본(대)승리', '조선변보', '정청(征淸)'과 같이 표현하여 뉴스 성을 강조하면서 전근대에 머물러 있는 청과 조선을 문명화 시켜야 할 대상에 대한 당위성의 상징이고 기호 자체로 인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청일전쟁이 종료되기 전에 제작된 일청한귀현초상이다.



日清韓貴顯御肖像, 1894년

나와(沖繩)의 폐번치현(류큐처분)을 선취한 기사에서 중국(인)을 '돼지'라는 이미지로 그렸다. 칼로 잘라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류큐감자'이고 그것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돼지'가 청국이다. 즉 마루마루친분이 일본국민 속에 멸시적인 중국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중국을 돼지라는 이미지화 시킨 첫 째 이유는 변발을 '돼지꼬리' 즉 영어로도 Pig tail이라고 한데서 유래하고 둘째 체구는 크지만 약하다는 이미지, 셋째, 현재 무리들에게도 각인되어 있는 '돼지' = '불결'이라는 이미지이다. 그런데 '불결'이라는 이미지는 일청전쟁 이후 중군한 병사들의 이민족에 대한 '불결'을 체험한 뒤에 연결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14) 앞의 책,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 p.29.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청일전쟁은 막을 내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을 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중앙의 큰 메달리온 속 메이지천황, 우측의 조선과 좌측의 청국을 배치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맹주로서 서구와 등가개념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청일전쟁니시키에의 이미지는 대외전쟁을 통해 국민의 호기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항적 대립으로 내셔널리즘을 고양시켰다. 문명이라는 과학적 기제를 담은 군함, 군복, 군 장비, 서구식 체형으로 일본군과 그 정점에 선 천황의 표상 이면에 전통복장과 두발, 구식무기, 땅에 떨어진 황기, 포로라는 키워드로 야만을 극대화시킨 청과 조선의 상반된 표상 통해 제국적 식민화의 이념을 정당화시키고자 했다. 즉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 내는 출판사 경제논리와 내셔널리즘이라는 프로파간다가 필요한 메이지정부의 비관제적 방법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기저에는 메이지정부 국가사상의 중심인 충군애국과 문명화 기호의 상징을 니시키에라는 이미지 속의 시각적 기호로 재창조한 니시키에시와 국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청일전쟁니시키에 속의 삼국의 이미지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기호들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재 맥락화 되면서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가 문명의 전쟁이라고 일컬었지만 문명의 기준으로 삼은 서구의 제국주의의 비문명적인 요소를 답습한 것에 다름없었다.¹⁵⁾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리, 『시각이미지를 통한 근대일본의 표상 연구- 개항기부터 메이지시대까지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진우, 『니시키에(錦絵)를 통해서 본 근대천황상과 조선 멸시관의 형성』, 동북아역사논총, 42호, 2013
- 니시카와 나가오·한중구/이목웁김,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1
- 와카쿠와 미도리·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웁김,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사, 2007,
- 와카비야시 미키오·정선태웁김, 『지도의 상상력』, 도서출판 산처럼, 2002,
- 大濱徹也,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 刀水書房, 2003
- 姜徳相編, 『錦絵の中の朝鮮と中國』, 岩波書店, 2007,
- 佐藤道信, 『〈日本美術〉誕生 近代日本の「ことば」と戦略』, 講談社, 2006,
- 丹尾安典·河田昭久編, 『イメージのなかの戦争』, 岩波書店, 1996,
-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 新曜社, 2004,

読売新聞 DB

일본국립국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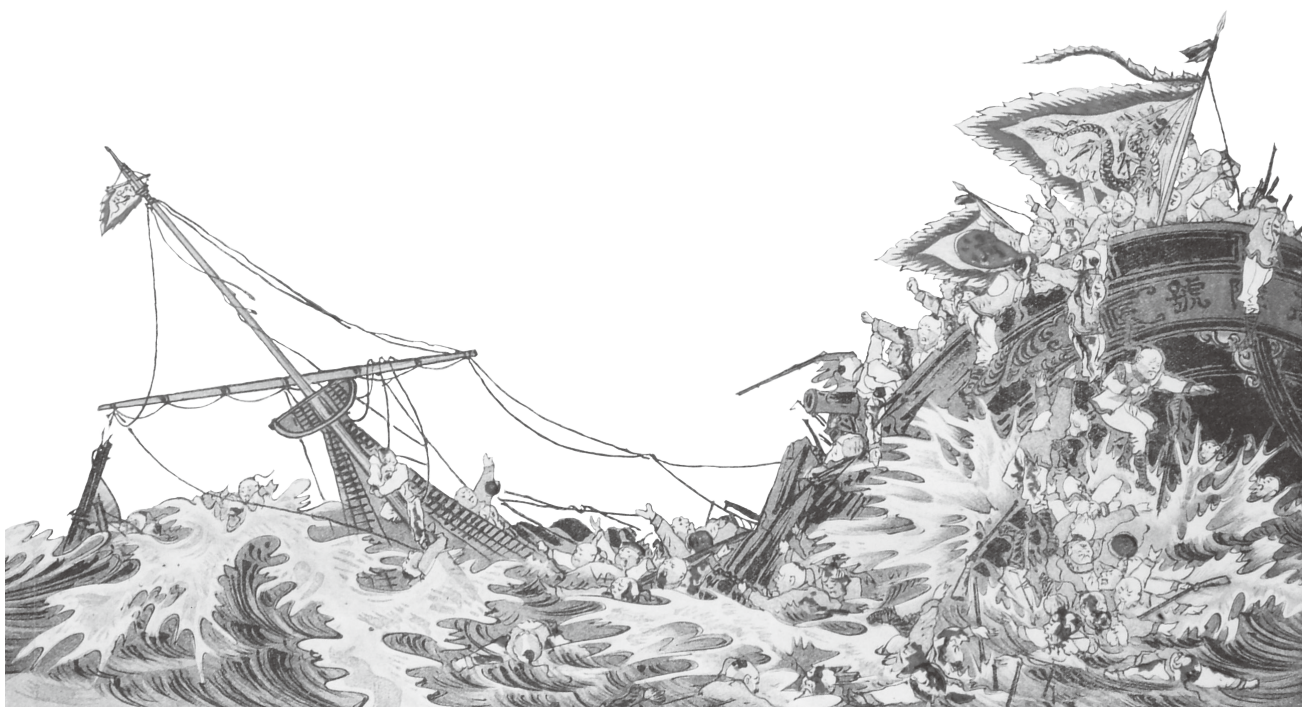
노다미술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5) 姜徳相編, 『錦絵の中の朝鮮と中國』, 岩波書店, 2007, p.92.

고승호, 수중 발굴 이야기

편 도 영(한국해저탐사연구소)



고승호, 수중 발굴 이야기

편 도 영(한국해저탐사연구소)

-
1. 서론
 2. 당시의 역사적 배경
 3. 고승호 침몰 과정
 4. 고승호 매장물 인양 노력
 5. 결론
-

1. 서론

경인일보 2015년 5월 26일자를 보시면 "고승호, 끝나지 않은 항해'展'... 청나라 '보물船' 바로 알기"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고승호(高陞號; SS Kowshing)'는 영국에서 1883년 건조되어 당시 영국 런던에 있는 인도차이나 기선회사 상해지점(Indo-China Steam Navigation Co., Ltd.)「잘튼마제슨 컴퍼니」를 통해 청나라가 임대한 화물선으로서 1894년 7월 25일 인천 울도 앞바다에서 일본 군함 나니와(浪速, 낭속)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수중 발굴 작업에서 건져 올려진 유물들이 일부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작업 현장에서 해저탐사 및 매장물 발굴 인양의 실무를 총괄했던 片度榮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해안 침몰선 해저탐사 및 매장물 발굴에 반평생 연구 및 조사 활동 하였으며, 2011년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1945년 미 해군기에 의하여 격추된 일본 선박 나포선 '니시마마루(#10二嶋丸/Nishima Maru No 10)'에서 근대 중국 화폐 약 1백만 여개 이상(140 상자/4.5 톤)을 발굴 인양한 실적도 있습니다.

2. 당시의 역사적 배경

고승호가 침몰한 1894년 초봄에 조선에서는 東學農民運動(동학농민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반봉건(탐관오리 추방), 반외세 운동(왜놈과 서양놈을 축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중들은 목숨 걸고 투쟁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도저히 자력으로서는 동학농민군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되자 청나라에 군대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일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미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텐진조약에 의하면 두 나라의 군대가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하며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조선침탈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이 이를 농칠세라 즉시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두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자 동학농민군과 정부는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습니다. 농민군은 외국군대를 내보내고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조선 정부의 약속을 받고 점령하고 있던 전주성에서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이어, 조선 정부는 두 나라에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청나라에게 두 나라가 조선의 내정개혁에 개입하자는 제안을 내놓고는 청이 가답하지 않으면 일본 단독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의 원세개(袁世凱)는 우선 철병을 주장했으나 일본은 결코 물러날 의사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은 속셈을 드러내어 청에게 조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894년 7월 25일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풍도(아산만 입구) 앞 바다에서 청나라 함대를 공격하여 격침함으로써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즉, 고승호는 이 때 일본 도고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가 이끄는 나니와(낭속함) 군함의 공격으로 침몰함으로써 청일전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나라의 북양함대는 일본 연합 함대에 패전을 거듭하여 같은 해 7월말 괴멸되므로써 청일전쟁을 계기로 세계의 중심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청나라는 이후 100년 넘게 약소국가로 전환되고, 조선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3. 고승호 침몰 과정

일본은 1894년 당시 한반도 지배와 대륙 진출에 대한 야심을 방해하는 청나라와의 일전을 통해 조선을 일본의 지배에 놓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본국으로부터 군대를 파병하는 일을 실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에 맞서 청나라 역시 군대를 계속적으로 증원하여 조선에 파병하고 있었는데 고승호 역시, 청나라가 군인을 수송(육전)하기 위한 선박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1894년 7월 23일 청나라 2차 증원군 1,220명과 야포 14문, 대량의 군자금과 무기 탄약을 싣은 고승호는 태고항(지금의 텐진항)에서 호위함 조강(操江)호와 함께 출발하여 7월 25일 아침 한반도 서해안 지역에 다다랐고, 이와 비슷한 시점에서 아산만에서는 청나라 해군의 순양함 제원호(濟遠號)와 광을호(廣乙號) 2척이 증원군을 맞이하기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제원호와 광을호가 풍도 앞바다에 다다랐을 때 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해 오는 일본 군함 3척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청나라가 만약 증원군을 파견하면 도중에 이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일본에서 출발한 연합 함대중 3척의 일본 군함은 순양함 요시노(吉野),이지즈시마(湫津州), 나니와(浪速,낭속)로 편성된 제 1 유격함대였다.

전쟁을 예견하고 있던 청·일 양국 사이에는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았고 서산 가로만 서쪽 앞바다에서 서로 거리가 좁혀가기 시작 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승패의 기회라고 파악한 양국 해군은 먼저 청국의 제원호가 포격을 가했고 연이어 일본의 군함들도 일제히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894년 7월 25일 오전 7시 50분에 일어난 풍도해전이며, 이 해전이 벌어진 동시에 청일전쟁의 발발이 이어졌습니다.

풍도 앞바다에서 계속 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강호는 제원호가 보낸 비상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각 함선을 돌렸으나, 고승호는 전속력으로 직진하여 울도 남방 앞바다 전투권 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고승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일본 군함의 나니와였고, 이 배의 함장은 훗날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펼친 도고헤이하치로 대령 이었는데, 그는 훗날 해군 대장을 거쳐 원수로 승진, 일본인들은 도고를 “군신”으로 여깁니다. 이때 도고 함장은 고승호가 영국 Union Jack 국기를 달고 있다는 것과 청나라의 육군 병력을 가득 싣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당시 일본은 청나라에 정식으로 선전 포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풍도 앞바다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영국 국기를 단 고승호가 청나라에 의하여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격을 했다는 구실의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도고 함장은 고승호를 처음엔 나포할 계획으로 고승호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고 당시 고승호 선장이던 영국인 골든워지에게 다시 출발 했던 텐진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도고 함장에 전했습니다. 이에 다시 도고 함장은 고승호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1시간 정도의 대치가 계속 이어졌으며 고승호를 나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나니와 함은 12경 쯤 우현 정면 150m 거리에서 어뢰와 대포(2회)를 발사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고승호는 검은 연기를 내면서 침몰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침몰한 시각은 1894년 7월 25일 오후 1시 46분이었고, 나니와 함장의 지시로 단정과 보트를 내려 고승호에 탄 영국인 승무원(11명)만을 구조한 바람에 대부분의 청군 병사는 침몰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울도 남방 앞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그 사이에 요시노와 이지즈시마 두함대는 맹 스피드로 도주하는 제원호와 조강호를 추격하여, 먼저 조강호를 바짝 뒤 따라가 사로잡았고, 제원함은 일본 추격을 따돌리고 서해안을 빠져나가 본국(텐진)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광을호는 전속력으로 도주하다가 서산(대산면 오지리 황금산) 앞바다에서 좌초되어 화약고가 폭발해 침몰해 버렸습니다.

당시 고승호가 침몰하던 장면을 담은 사진은 본 글 앞표지와 같습니다. 1894년 7월 25일 울도 앞바다에서 격침 되었고, 영국 국적의 수송선에는 청군 1,2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생존자는 겨우 87명이었고 그 다음날 프랑스 군함이 청군을 170여명을 구출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4. 고승호 매장물 인양 노력

고승호(전장 250피트, 폭 39.2피트, 심21피트, 2,134톤)는 침몰 당시 청나라 병사와 대량의 군자금을 싣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고승호에 실려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또한 청나라의 사료에는 고승호에 군자금으로 쓰일 은 2만5천량이 실려 있던 것으로 기록되면서 고승호의 매장물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다량의 은이 실렸다는 부분은 1935년 2월24일자 동아일보의 고승호 관련기사에도 나와 있고, 또한 고승호에 대한 기록은 당시 일본의 법무관으로서 선장 및 승조원을 취조했던 영송겸증(營松謙燈, 근대해전 1-2160-596 日比谷圖考錄) 및 중앙공운사 발행 역사서에 저술되어 있으나 후일에 이르러 고승호를 한층더 유명하게 만든 이유는 많은 청나라 병사 외에 청국 정부의 군용자금으로 거액의 은괴와 은화를 싣고 있었다고 확인된 후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치가와 기업가 간에 이권 쟁탈이 있었던 뒷 역사 또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강점기간인 1930년에 고승호 인양을 시도했으나 기술 장비 부족 등으로 실패했고, 광복 후 일본인들이 1971년 고승호에 대한 인양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시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인양작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1979년, 1989년에도 일부 소수인 등이 매장물 발굴을 시도하였으나 자금, 장비, 계획 및 열악한 환경 등으로 곧 바로 철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관광이벤트업체인 골드쉽사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방 2km 지점의 해저에서 고승호 매장물 발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같은 해 7월 31일 이 회사는 청나라 침몰선 고승호로 추정되는 선체 앞부분에서 은화 및 은괴, 금 · 은수저와 소총, 아편 파이프 등 각종 유물을 발굴했다고 발표하며, 이 흥미진진한 뉴스는 즉각 언론을 탔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골드쉽은 경남기업의 전신인 대아건설이 약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고승호 매장물 관련 보도 직후 코스닥 등록업체였던 대아건설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당시 45세로 혈기 넘치던 저는 고승호 매장물 인양작업 현장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뱀에 파묻혀 1백년 이상을 잠자던 매장물과 청나라 병사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총기 도자기 등을 발굴해 올리면서 저는 그야말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풍전등화의 신세로 전락한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쥔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 서해안 앞바다 해역에서 벌인 해전의 결과물이 다시 우리 앞에 그대로 등장하는 순간들을 저는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고승호 내 뱀속에서 인양한 시커먼 쇠덩어리(납찌꺼기)가 폐기물인 줄 알고 다시 바다 속으로 내던져버린 일이 수시로 있었는데 일부 잔존물의 성분을 분석 확인한 결과 99.9%의 은이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1년 동안 뱀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울도 앞바다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머리로 식히실 겸, 잠시 당시 고승호 매장물 인양작업에 대한 동영상 3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모두 아래 유튜브 링크를 방문하여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Kowshing Excavated near Ul-do, Incheon, South Korea (Mar 2001-Oct 2002) (1/3)

<https://youtu.be/8Rlot2yJoD8> (6분 38초)

Kowshing Excavated near Ul-do, Incheon, South Korea (Mar 2001-Oct 2002) (2/3)

<https://youtu.be/-ETz3l5AeBE> (6분 50초)

Kowshing Excavated near Ul-do, Incheon, South Korea (Mar 2001-Oct 2002) (3/3)

<https://youtu.be/-xbMKJKGg3I> (3분 39초)

당시 고승호에서 인양된 일부 매장물들은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 및 전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침몰된 고승호 선내와 선외에는 당시의 매장물들이 다량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진행되었던 당시의 매장물 인양작업은 고승호의 약 1/4 정도를 발굴한 것입니다. 즉, 나머지 3/4은 그대로 인천 앞바다 (위도상으로는 서산 앞바다 위치) 해저에 잠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선박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무거운 화물일수록 선박의 아래에 적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인양된 매장물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건져진 매장물보다 아직 건지지 못한 매장물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왜 매장물 인양이 완료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즉, 일부 매장물이 출토되고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사업의 주관처인 골드쉽과 그 모회사 대아건설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주가의 폭등에 따라 쟁긴 불순한 경영진에게 인양작업은 더 이상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경영 마인드 이유로 고승호 매장물 인양은 아직까지도 미결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해저탐사에서 주는 교훈은 순수하게 매장물 발굴 인양물로서 승부를 걸었을 때만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며 발굴 인양의 원칙과 명분을 벗어났을 때 자연적 실패로 나누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청·일전쟁의 시작점 고승호의 침몰은 조선 즉 한국, 일본, 청나라 즉 중국 그리고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등 여러 열강의 나라가 관여되어 있는 극동아시아의 근대 찬탈 역사에서 벌어진 국제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줄 고승호 매장물 인양은 이제는 세계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011년 군산 앞바다에서 일제 강점기 말 침몰된 니시마마루 10호 선박으로부터 인양물 일부, 즉 중국 근대 화폐를 인양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고승호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서해안에서 니시마마루 해저탐사 및 매장물 발굴에 대한 2011년 5월~7월까지 작업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xcavation of the Deposit from a Ship Sunken Underwater off Gunsan
(25th Apr-12th Jul 2011) <https://youtu.be/VF0U4ZaTq4E> (19분 57초)

5. 결 론

고승호와 니시마마루 이외에도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만 약 3,000여척의 침몰선의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는 현대, 근대, 조선 및 일제 강점기, 그리고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대에 이르기까지 서해안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선박들이 화물운송, 전쟁 등 바다를 개척하는 도중에 침몰하였습니다.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침몰선에 실린 매장물 등을 인양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는 일과 일맥상통합니다. 단,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외에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면 이런 일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저탐사 개발은 미래 지향적 산업을 개척하는 길이며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렇듯 무궁한 해저 자원에 대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의 열정으로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룩하는 길만이 미래를 보장되는 기반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과 확인, 사실증명, 정황 근거의 근간으로 이루어진 자료들과 매장물건이 일치한다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학술적 가치 와 목적을 능가하는 기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고승호 침몰선 내외부 지역에서 모두 매장물을 인양하는데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신화를 기록할 수 있을 음을 관련 기관은 의미심장하게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日本外交文書 第 27 卷 第 2 冊(明治 24 年 1 月~12 月)

東郷平八郎(高陞号 擊沈)

日本人들이 作成한 高陞号 引揚發掘 事業計劃書(1971年)

近代 日本의 歴史(1954年)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97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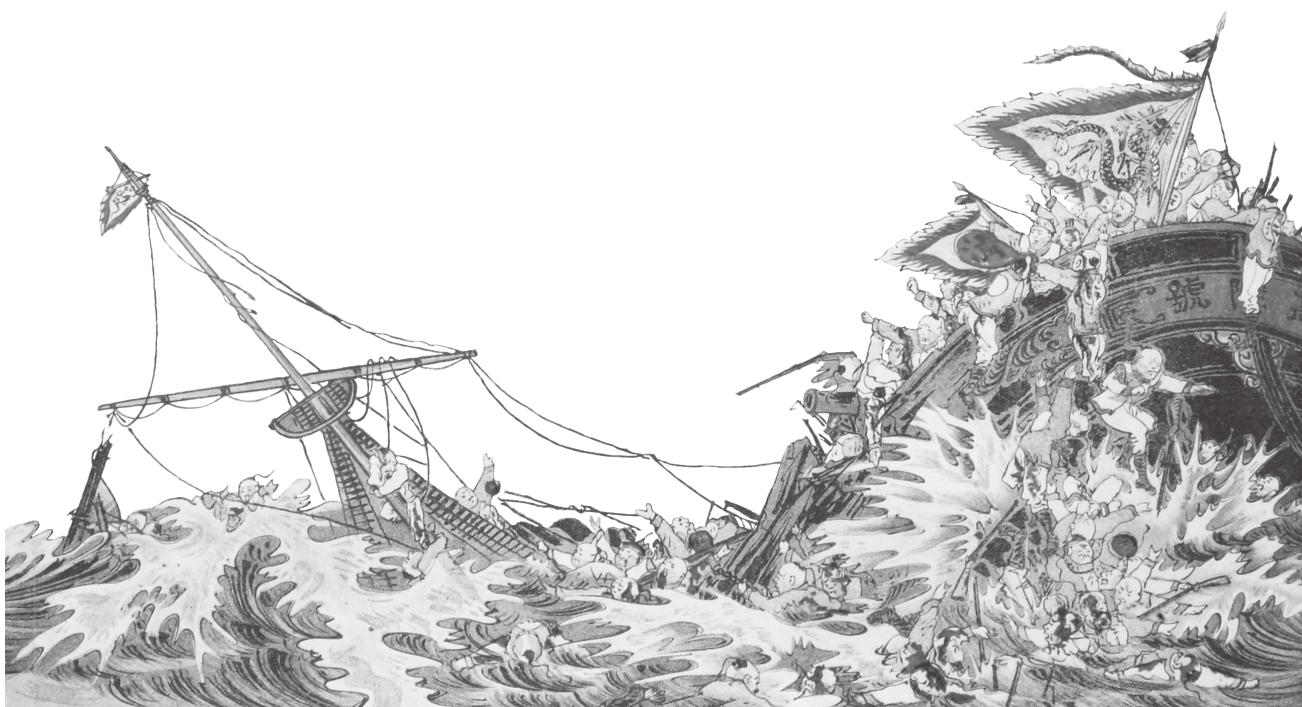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038&cid=42976&categoryId=42976>

http://ko.wikipedia.org/wiki/%ED%92%8D%EB%8F%84_%ED%95%B4%EC%A0%84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5/01/19/200501190500059/200501190500059_1.html

청일전쟁의 전개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구 선 희(국사편찬위원회)



청일전쟁의 전개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구 선 희(국사편찬위원회)

-
1. 일본의 경복궁 점령 - 청일전쟁의 시작
 2. 청일전쟁의 전개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
 3. 청일전쟁기 조선인의 청과 일본에 대한 인식
 4. 청일전쟁의 동아시아적 의미
-

1. 일본의 경복궁 점령 - 청일전쟁의 시작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은 조선에서 처음 시작된 청과 일본의 전쟁이라고 말해지지만 그 첫 시작은 조선과 일본과의 싸움이었다. 또한 당시 일본정부의 문서나 일본군의 보고서 등에 청일전쟁을 '한청일전쟁'이라고 언급되기도 했다. 이것은 청일전쟁의 주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청일전쟁 발발 직전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의 배타적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구미 열강과 통교하는 등, 청과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때문에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군이 처음으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침입하여 점령한 때였다. 이것은 청일전쟁이 조선과 일본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일본은 이때의 무력 사용을 조선의 탓이라고 했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에 대해 일본은 경복궁 점령은 먼저 발포한 조선 병사와의 우발적인 충돌에서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응전하며 왕궁으로 들어가 국왕을 보호한 것으로 소규모 충돌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이것이 당시 일본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의 이런 견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한 것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파견된 청나라 군대와 무력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군을 공격하는 데 유리한 형세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은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을 거점으로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었고, 청은 아산만을 통해 군대를 조선으로 보내고 있었다. 일본은 조선정부 권력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서울의 남쪽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 조선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조선정부 권력의 핵심인 왕이 거주하는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복궁 점령으로 조선의 국왕은 일본의 포로 아닌 포로가 되었고, 왕비 일족과 대립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일본에 의해 정권을 잡게 됨으로써 조선정부는 일본에 종속되었다. 이로써 서울에 있는 조선의 군대는 일본군에 의해 무장 해제 되었고, 일본군에 필요한 군수품 수송과 징발 등은 모두 조선정부의 명령으로 시행됨으로써 일본은 조선에서 전쟁을 치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복궁 침입 과정에서 일어난 조선군과 일본군의 교전을 일본 자료("일청전사 초안")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7월 23일 오전 0시 30분, 공사의 전보를 받은 오시마 여단장은 모든 부대를 향해 계획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고, 또한 사람을 시켜 서울-의주 간과 서울-인천 가나 전선을 절단하여 이 일이 청나라에 빠르게 전해지는 것을 막으면서, 막료를 이끌고 일본 공사관으로 지휘부를 옮겼다.

.....

다케다 중좌가 지휘하는 일단이 영추문에 도착했는데 대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영추문을 부순 후 가와치 중위의 2분대가 먼저 돌입하여 문을 지키고, 차례로 제7, 제5중대가 진입하였으며, 제7중대는 함성을 지르며 곧바로 광화문으로 나아가 수비하는 조선 병사를 쫓아내고 점령한 다음 안에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1소대는 다시 건춘문으로 나아가 안에서 문을 열었다. 이 사이에 수비하던 조선 병사는 한 명도 저항하는 자 없이 모두 북쪽으로 도주하였다.이때 제6중대는 예정대로 남대문으로 들어가 오전 4시 20분 건춘문에 도착했는데, 문 밖에 있던 조선 병사가 이들을 향해 총을 쏘아 즉각 응사했다. 5시 조금 지나 영추문으로 들어온 제7중대의 1소대가 도착해 안에서 문을 열어 곧바로 문안으로 진입하였다. 건춘문으로 들어온 제6중대는 다시 북방의 춘생문, 신무문, 순거문을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병력을 나누어 조선 병사를 추격하면서 왕궁 내부를 지나 북쪽으로 일제히 행진했다. 그런데 춘생문으로 향하던 부대가 왕궁 북부 외곽에 이르자 북쪽 소나무 속에서 조선 병사가 사격을 가해 그에 응

사하였다. (이때 제3중대는 근처 왕궁 성벽의 외부에서 남쪽의 조선 병사와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제5중대는 군기를 호위하면서....광화문 안에 있었는데 북쪽에서 격렬한 총성이 들려오자 다케다 연
 대장은.... 아마구치 대대장으로 하여금 제5중대를 지휘하여 제6중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이에 제5중대는 즉각 건춘문 안에서 성벽 안쪽을 따라 북진하였다. (아마구치 대대장은 건춘문의 누각
 위에 올라 일반적인 정황을 시찰한 뒤, 제5중대를 뒤따랐다. 이때 외부독판 조병직이 궁내에서 나와 오
 토리 공사를 면회할 것을 청했다. 대대장은 이를 허락하고 호위병을 달려 광화문으로 나가게 했다.) 제5
 중대가 지원하자 처음에 제6중대에 맞서 저항하던 조선 병사는 속속 북쪽 왕궁 성벽을 넘어 백악 방향으
 로 도망감으로써 양쪽 사격이 가까스로 멈추었다(오전 7시 반).

위의 자료를 보면 오전 4시 20분부터 오전 7시 반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선군과 일본군의 총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후 국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자료("일청전사 초
 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왕궁 안의 조선 병사 대부분을 쫓아내 성벽은 사방 모두 일본병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제 핵심은 왕
 궁 내부를 수색하여 국왕의 소재를 발견하여 포위하는 데 있었다. 즉 아마구치 대대장(이때 왕궁 북부에
 있었다)은 제5중대와 제6중대의 2분대에게 수색을 명령했다. 잠시 후 제5중대장으로부터 "국왕이 옹화
 문 안에 있고, 조선 병사가 지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대대장은 우선 부하들의 사격을 제지
 하고 직접 왕이 있는 곳으로 갔다(당시 국왕은 옹화문 안 함화당에, 왕비와 후궁은 집경당에 있었는데,
 전투가 시작되자 왕비가 함화당으로 거처를 옮겨 국왕과 함께 있었다.) 아마구치 대대장이 옹화문에 이
 르렀을 때에는 제5중대 일부가 이미 문안에 있었고, 장교는 조선 관리와 담판 중이었다. 여러 사람
 [조선 관료를 말함-필자]이 대대장에게 청하기를 "외무독판이 지금 오토리 공사 있는 곳으로 가서 담판
 중이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병사를 옹화문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대장이 말하기
 를 "문안에 있는 조선 병사들을 보라. 만일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나에게 내주지 않는다면 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대대장이 즉각 칼을 빼들고 군대를 지휘하여 질타하면서 문
 안으로 돌입하려고 했다. 그들은 크게 놀라 대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왕의 재결을 얻을 때까지 미루
 기를 청했고, 잠시 후 문을 나와 조선 병사의 무기를 내주었다.

일본군은 조선 병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무방비 상태가 된 국왕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 경복궁을 점령하
 던 날 일본군은 경복궁 점령과 함께 왕궁 주위에 있던 조선의 군사 시설을 모두 점거하고 무기를 압수했기 때
 문에 조선 병사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왕궁 북쪽 고지에서 시작된 조선측 사격이 오후 2시경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았다고 한 일본측 기록을 보면, 조선군과 일본군간의 교전이 오후 2시까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함으로써 벌어진 조선군과 일본군의 교전은 일본이 계획한 청일전쟁의 시작이었다.

2. 청일전쟁의 전개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

일본은 경복궁 점령 후 전쟁을 수행해가던 초기에 조선에 대한 정책을 결정했다. 그것은 조선을 사실상 일본의 보호 아래 둔다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청일의 격전은 바다에서는 풍도만, 육지에서는 아산·성환에서 본격화되었다. 1894년 7월 25일 풍도해전에서 일본군은 청 군함을 궤멸시키고, 7월 29일 성환 전투에서 청군을 패퇴시켰다. 성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조선의 중부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 외무대신은 아산 전투의 결과로 경성 부근에는 이미 한 사람의 청국 병사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조선정부는 완전히 우리 제국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쾌보가 일제히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1894년 8월 1일 일본은 청이 조선을 속방으로 칭하며 조선내정에 간섭했다고 지적하며 청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때 일본은 전쟁을 하는 목적에 대해 조선내정개혁과 조선에서 청 세력의 배제에 의한 치안과 독립의 유지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청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본이 국제공법을 어기고 침략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일전쟁은 조선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선전포고는 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선전포고 문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만든 초안들에서는 선전포고 대상국이 변화하고 있었다. 최종 확정된 선전조치는 8월 1일 일본 천황에 의해 공포된 것으로 청일전쟁 선전포고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종 선전조치가 만들어지기 전 제1초안과 제2초안에서는 선전포고 대상국이 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3·4초안에서는 조선이 청과 함께 선전포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제5초안에서는 ‘청 및 조선’이라는 문구가 있고, 조선에 밑줄을 긋고 지운 흔적이 있다. 제6초안에는 선전포고 대상이 청으로 되어 있고, 공식 선전포고문에서도 청만을 선전포고 대상국으로 설정했다. 선전포고 대상국에 대한 변화는 청일전쟁에서 조선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이 고민을 했다는 반증이다.

8월 17일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하기로 결정하고, 서울-부산, 서울-인천 간 철도부설권과 전신가설권 및 개항장 증설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할 것을 정한 '한일잠정합동조관'을 조선과 체결했다. 이어 8월 26일에는 조일공수동맹이 조인되었다.

조일공수동맹은 3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제2조는 청일전쟁에서 조선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일본국은 청국에 대해 공수의 전쟁을 맡고 조선국은 일병의 진퇴 및 그 식량 준비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을 전쟁지역에 포함시켜 조선에 일본군의 식량을 공급하게 하고, 일본군이 인부 및 말을 징집하는 데 편리하도록 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토벌할 때에도 조일공수동맹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조일공수동맹에 의해 일본군의 인마와 식량 징발 등은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일본이 의도하는 것처럼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인부 징발의 경우 청군의 모집에 응하는 조선인은 많았으나 일본군에 의한 사역은 기피했다. 일본군의 모집에 응했던 조선인 인부들도 야행이나 며칠간의 숙박에는 복역하지 않고 도중에 도망했다.

1894년 9월 14일을 전후하여 청과 일본의 격전이 있었던 평양에서의 전투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조선정부는 일본의 요구로 평양전투에 조선군을 투입시켜 협력했다. 반면 평양감사 민병석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청군과 함께 일본군과의 싸움을 준비하기도 했다.

평양전투에서 패한 청군이 본국으로 후퇴하자 일본은 패퇴하는 청군을 쫓아 북진했다. 이때 북진한 일본군은 약 27,000명이었다. 평양전투를 비롯하여 청군과 일본군이 북진하는 길에 필요한 인마와 식량을 징발당한 황해, 평안도 지역은 청·일 양군의 병참기지로 변했다. 황해·평안도 지역의 병참기지화로 인해 일본의 병참부속격과 전신선 절단 등으로 일본에 항전하는 조선인이 속출했다.

3. 청일전쟁기 조선인의 청과 일본에 대한 인식

일본 신문기자가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취재하며 기록한 글과 청일전쟁에서 전투를 지휘했던 청군 사령관의 일기를 통해 당시 조선인이 갖고 있었던 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 니시무라 도키스케[西村時輔]가 청일전쟁을 취재한 내용중 일부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청일전쟁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군에게 경계심과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군대가 통과하는 길 옆의 촌민들은 모두 도망했고, 조금 높은 언덕에 20~30명 정도가 모여 일본군에 돌을 던졌으며 남대문 밖에 있는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군 보초병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조선인 대다수는 청일간의 전투에서 일본의 승리를 믿지 않았다. 9월 17일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의 대첩 사실을 고시를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럴까?'라는 한 마디 외에 특별히 이를 반기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군이 평안도 의주를 함락하고 청국의 봉천부까지 공격해도 일반인들의 감정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풍문에 대해 조선인은 각 계층별로 느끼는 감이 달랐다. '하등인민'은 허황된 말이라 여겼고, '중등인민'은 승패의 사실이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상등사회'는 몇몇 만이 믿었다. 조선인들은 청국이 일본을 '어린 아이'처럼 우습게 본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청일전쟁 당시 청군 사령관 니에시청[聶士成]의 일기[「東征日記」] 중 일부분이다.

5월 6일 아산현 주둔(관아 옆 이사청에 묵음)

조선국왕이 外務協辦 李重夏를 보내 군사들을 위문하였고 물품을 공급해주는 것이 세심했다.

5월 24일 새벽 두 시에 幕僚 李穀生과 장교 魏家訓 등을 거느리고 군사를 이끌고 전주로 출발하였는데 50리를 행군하여 安州에 머물렀다. 병졸이 민간의 채소를 하나 훔쳤기에 그의 귀를 베어 軍令을 보이니 모든 군사가 숙연해졌다. 안주 수령 金씨와 溫陽 수령 徐씨가 모두 와서 인사를 나누었다. 오후에 조선정부의 招討使 洪君(洪啓薰을 가리킴)이 장교를 통해 편지를 보내오면서 소 2마리, 돼지 10마리 및 달걀 1,000개로 우리 군사를 위문하였는데 달걀만 받아두고 나머지는 모두 되돌려주도록 지시하고 답장을 보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5월 26일 원세개의 전보를 연달아 받았는데, 왜인들이 군사를 증파하면서 조선을 도와 자주하도록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상황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오후에 조 관찰사를 찾아 인사하였는데 술자리를

마련해 노래하는 기생들에게 술을 권하도록 하여 돈을 내서 상으로 나누어주고 즐기다가 헤어졌다.

5월 27일 관찰사 조병호 공이 錦江閣에서 酒筵을 베풀고자 李太守, 沈判官, 朴中軍을 보내 가마를 갖고 데리러 왔기에 막료 李穀生과 함께 따라 갔다.

술자리가 끝날 즈음 조병호 공이 조선의 나랏일을 이야기하면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려 이 때문에 마음이 슬퍼져 기분이 좋지 않게 헤어졌다. 돌아오자 한 노인이 희끗희끗한 수염에 백발을 하고 홀연히 찾아와 옷소매에서 시 한 편을 꺼내 우리 군사들이 지나가면서 백성들을 조금도 침범하지 않았다고 칭송하기에 웃는 얼굴로 고마운 인사를 해주었다.

6월 초3일 (오후) 3시에 전주에 도착하니 文武 관원들이 줄지어 성 밖까지 나와 맞이해주었다. 남문으로 들어서니 가옥들이 불에 탄 것을 보았는데 백성들이 머물 곳이 없어 매우 불쌍하였다. 전주 관아에 머물었는데 관찰사 金(金鶴鎭을 가리킴)이 찾아와 인사하면서 음식을 바치고 비적들을 토벌한 사실을 자세하게 말한 뒤 곧바로 떠나갔다.

7월 초7일 40리를 가서 荒村에서 묵었는데 백발노인과 어린이들까지 모두 와서 구경하며 채소와 딸감을 바치고 대신 우물을 퍼서 밥을 짓기도 하였다.

7월 16일 10리 남짓을 가서 한 마을에 도착했다. …… 큰 비가 그치지 않아 결국 이곳에서 묵었다. 주민들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바치고 가옥을 내주어 머물 곳을 제공하기에 모두 후하게 상금을 주었다.

위의 청군 사령관의 일기에서와 같이 청군과 조선인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청군 중에는 조선에 파병되어 통과하는 곳마다 가옥을 불태우거나, 사람을 살상하고, 재물을 탈취하며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등 만행을 자행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인은 청군 보다는 일본군을 침략자로 간주하고 항거했다.

4. 청일전쟁의 동아시아적 의미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삼국인 조선, 청, 일본의 관계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청일전쟁의 평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국주의로, 청을 반식민지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일전쟁 직후 조선과 청이 반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반일,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조선과 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측면도 청일전쟁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에 친일정권을 수립하여 조선의 '보호국'화 정책을 계획 대로 진행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에서 각종 이권을 탈취하는 동시에 군사동맹으로 조선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의 반일운동을 진압하기도 했다. 평양전투 이후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은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항일운동은 여러 지역과 계층으로 퍼져나가 일본의 조선정책에 타격을 주었다.

한편 청은 패전 결과 1895년 4월에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청은 요동반도, 대만,澎湖 열도를 일본에 떼어주고, 일본에 군사비로 은 2억냥을 배상했다. 그리고 일본이 청에서 공장을 세우거나 개항장을 증설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조약으로 청의 반식민지화는 점차 심해져갔다.

당시 청 지식인은 청의 패배에 대해 "나는 갑오전쟁 패전의 소식을 고향에서 듣고서, 나의 둘째 형과 통곡하였다. 이는 실로 전대미문의 망국조약이었다..... 전에는 우리나라가 서방 대국에게 패배했었는데 현재는 동방의 소국에게 패배하였다. 이렇게 참담하게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조약이 이렇게 가혹하니 정말 큰 치욕"(화동사범대학출판사가 펴낸 『중국역사』 교과서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청국인에게 청일전쟁은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전통질서가 붕괴되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이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청국인의 반침략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청일전쟁은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모아지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결과 얻은 청일전쟁 배상금과 이후 삼국간섭에 의해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면서 받은 반환비를 합하여 총 2억 3,150만냥을 거머쥐었다. 이 배상금액은 일본 화폐로 환산하면 3억 4,725만 엔이었다. 당시 청정부의 매년 수입은 8,890만냥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받은 배상금의 88%인 약 3억 500만엔을 군비확충으로 사용했고, 58만엔을 철강공업에 사용하였다. 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제국주의로 부상하는 데 요긴하게 쓰여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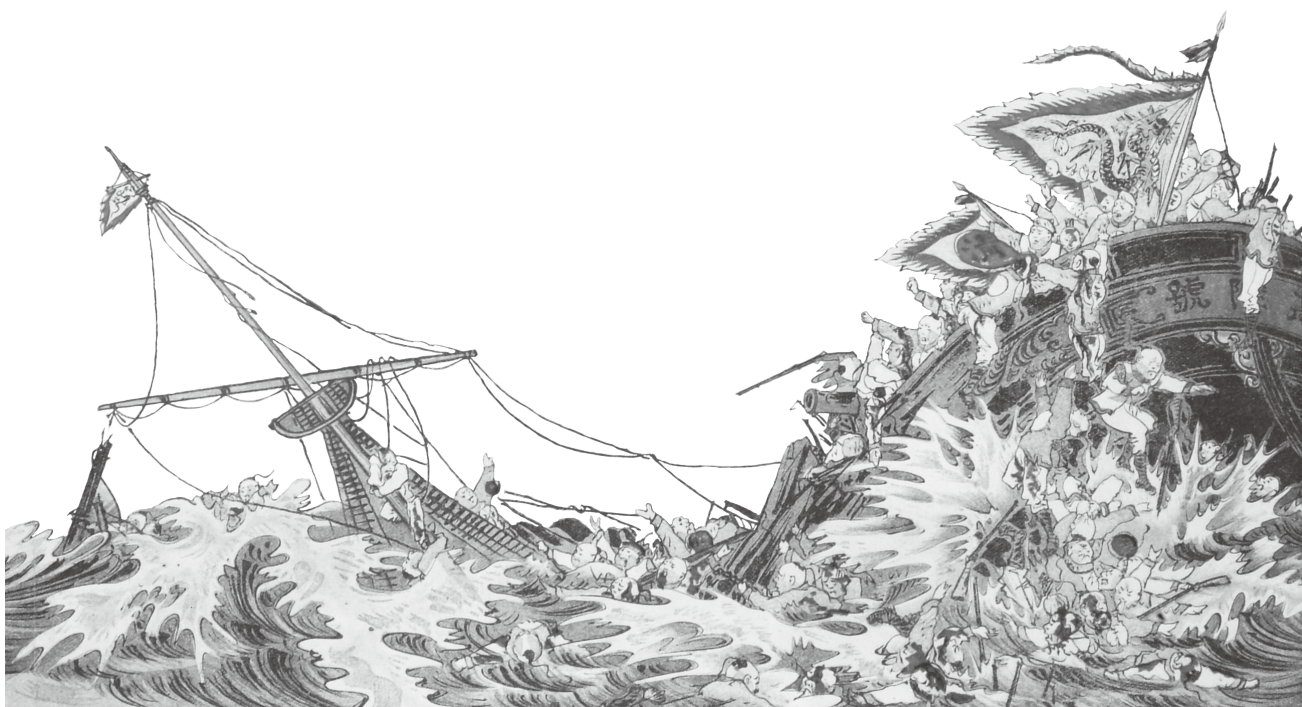
참고문헌

- 王信忠, 1936 「中日甲午戰役之外交背景」北京：清華大學出版部.
- 信夫清三郎 編, 1974 「日本外交史 1853-1972」Ⅰ, 東京：毎日新聞社.
- 韓國史研究會 編, 1985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 日本의 對韓政策形成에 관한 研究 -」 - 潮閣.
- 朴英宰 譯(朴宗根 著), 1989 「清日戰爭과 朝鮮 - 外侵과 抵抗 -」 - 潮閣.
- 김승일 옮김(무쓰 무네히쓰 지음), 1993 「건건록」 범우사.
- 柳永益 외, 1996 『清日戰爭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大江志乃夫, 1998 『東アジア史としての日清戦争』 立風書房.
- 權赫秀 譯(陳偉芳 著), 1999 『清·日 甲午戰爭과 朝鮮』 백산자료원.
- 具仙姬, 1999 『韓國近代 對清政策史 研究』 해안.
- 朴英宰, 2000 「청일전쟁」 『한국사』 40, 국사편찬위원회.
- 박맹수 옮김(나카츠카 아키라 지음), 2002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 具仙姬, 2006 「청일전쟁의 의미-조·청 '속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7, 한국근현대사학회.
- 강호숙, 2008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 강호숙, 2009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병참부 -황해·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 서민교, 2010 「청일전쟁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의 조선에 대한 군사·외교정책」 『일본역사연구』 32, 일본사학회.
- 김지훈, 2014 「현대중국 역사교과서의 청일전쟁 인식」 『역사와 세계』 46, 효원사학회.

『언덕 위의 구름』 과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전쟁관

이 복 임(한남대학교)



『언덕 위의 구름』과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전쟁관

이 복 임(한남대학교)

-
1. 청일전쟁의 개요
 2.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3. 소설 『언덕 위의 구름』과 드라마
 4. 언덕 위의 구름과 청일전쟁
 5. 맺음말
-

1. 청일전쟁의 개요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정한론(征韓論)이, 청국(淸國)에서는 조선을 근대 국제법적 차원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중·일 간의 각축은 서구열강들과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청일·러일전쟁(1894·1904)으로 비화되었고 대한제국의 국권상실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봉기로 인하여 일본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 발발된 청일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즉, 중화문명권의 문명기준이 명실상부하게 역전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 중화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듯 20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발발한 청일전쟁에 대하여 일본 문헌을 살펴보면 '1894년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일본과 청국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의의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근대일본이 체험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외전쟁이었다. (중략) 이로 인하여 일본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국(壓迫國)의 지위를 차지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들어가는 길을 구축했다. (중략) 일본 국내에서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하여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제국주의국으로서 체제를 완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의화단의 진압, 영일동맹의 체결을 거쳐 러일전쟁으로 향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자국의 이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족운동억압의 강력한 장치로 일본의 군사력을 작동하여 세계적인 제국주의열강의 지배체제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

이는 일본의 근대화가 추진되었던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부국강병이라는 국가목표에 발맞추어 촉발된 전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일전쟁에 대한 자국주의적 해설에 발맞추어 일본에서는 패전 이후 1960년대 최고의 대중문학자인 시바 료타로에 의해 역사소설 속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2.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시바 료타로(1923~96, 이하 '시바'로 칭함)는 제일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시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있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있으며, 2편의 한국역사기행수필집(『한국기행』, 『탐라기행』)으로 일본에 한국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또한 좌담회 형식을 빌어 간행된 6권의 『일본 속의 조선문화』시리즈에서는 한·일문화의 연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²⁾ 1980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신군부에게 사형선고를 받자 구명운동으로 당시 일본총리였던 스즈키 젠코(鈴木善幸)에게 편지를 보내 구원에 나서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일본작가라고 할 수 있다.

1) 吉川圭三(1990)『国史大辞典』第十一卷,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 pp.58~59. 한국어 번역은 원고작성자에 의함.

2) 『일본 속의 조선문화』(講談社)는 1982년에 『일본의 조선문화(日本の朝鮮文化)』『고대일본과 조선(古代日本と朝鮮)』『일본의 도래문화(日本の渡来文化)』『조선과 고대일본문화(朝鮮と古代日本文化)』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발간되었고, 1987년과 88년에 『일한이해로의 길(日韓理解への道)』『일한 서울의 우정(日韓ソウルの友情)』이 추가로 발행되어 시바 료타로의 「좌담시리즈」 전6권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본명은 후쿠다 데이이치(福田定一)이지만, 작가로 활동하면서 중국 최고의 역사가인 사마천을 존경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본인'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오사카 외국어대학 몽골어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을 당시 2차대전 학도병으로 참전하였고, 패전 후 신일본신문사(新日本新聞社)를 거쳐 산케이신문사(産経新聞社)에서 기자로 약 15년간 근무하였다. 1956년 동인잡지 『근대설화(近代説話)』의 결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1959년에는 『올빼미의 성(梟の城)』으로 일본에서 가장 대중성이 높은 문학상인 나오키(直木)상을 수상했다. 이후 전기성이 강한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지만,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료마가 간다(龍馬がゆく)』(1962)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에 현대적 해석을 가미했다고 하여 역사소설의 새 분야를 개척한 작품으로 각광받았다. 그 후속작품으로 청일·러일전쟁을 배경으로 당시 군인이었던 아키야마(秋山)형제와 시인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등의 인간 군상을 통해 메이지 시대 일본의 여명을 그린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1968)으로 일본에서는 대중적 인기작가로 칭송받게 되고, 2007년에는 「언덕위의 구름 박물관(<http://www.sakanouenokumomuseum.or.jp>)」이 개관되었다.

살아생전 60종의 소설과 50종의 평론, 에세이, 대담집 등을 발간했으며, 그 중 베스트셀러가 12종, 1백만 부 이상 판매된 작품만 10종이 넘는 일본의 정신적 지주로 국가, 종교,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학문적 견해뿐 아니라, 역사소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 후 이른바 일본의 단카이(団塊)세대(7,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이 된 세대)들에게 일본이 나아갈 길과 일본인의 원형을 제시해준 인물로 알려지면서 국민작가로 정평이 나았고, 2001년에 그의 기념관(<http://www.shibazaidan.or.jp>)이 건축되었다.

시바는 역사소설을 집필할 때마다 '트럭 하나 분의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고대에서부터 근대의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녹아있어, 박진감 넘치는 일본사의 한 장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역사적 영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물, 즉 아웃사이더(Outsider)를 주인공으로 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의 일면을 독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학계에서는 '시바사관(司馬史観)'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역사관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학문적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의 업적을 기려 1998년에는 문예, 학예, 저널리즘 분야에서 창조적 활동으로 주목을 끈 사람에게 수여되는 '시바 료타로 상'이 제정되었다.

3. 소설 『언덕 위의 구름』 과 드라마

『언덕위의 구름』은 메이지유신(1868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장편역사소설로 1968년부터 72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총 1296회 연재되었다. 단행본으로 문예춘추(文藝春秋)가 총 6권으로 출판하였고(1969~72년), 문고본으로는 1978년에 문춘문고(文春文庫)가 시마다 긴지(島田謹二)의 해설을 가미하여 총 8권으로 출판하였다. 한국에서는 1991년 이송희에 의해 10권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2005년에는 박재희의 『대망(大望)』시리즈물로 번역되어 34~36권에 수록되어있다.

이 작품은 청일, 러일전쟁을 모티브로 하여 일본의 근대초기 유럽열강을 모델로 국민국가형성을 목표로 한 메이지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일본의 고도성장기가 둔화되면서 저성장으로 진입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작가가 제시하고자 했던 목적의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유추해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19세기를 전후하여 한반도의 지배권 쟁탈전이었던 청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작가가 표출하고자 했던 의도와 전술했던 아키야마 형제와 같이 전쟁영웅이 아닌 서브리더(Sub-Leader)로 주인공을 선택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³⁾

일본에서 저명한 잡지사인「문예춘추(文藝春秋)」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는 ‘20세기 국내 서적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책’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재·문화인 170명이 『언덕위의 구름』을 1위로 선정하였고, 2003년도에는 후세에 남길 만한 가장 좋은 역사소설 1위, 일본을 바로 볼 수 있는 최량의 교과서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 국영방송국인 NHK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부로 나누어 3년에 걸쳐 11월과 12월에만 '대하역사드라마'로 편성하여 방영하였다. 그리고 작품이 연재되고 있을 당시 시바 료타로에게 영상화로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전쟁찬양'이라는 오해의 소지와 작품의 스케일을 묘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사후 1999년 시바 료타로의 기념재단이 영상화를 허락하여 10년간의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TV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이렇듯 원작자의 의도와는 달리 대중매체인 <엔에이치케이>가 제작한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다. "『언덕 위의 구름』은 메이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년과 같은 희망을 갖고 국가의 근대화에 몰두하고, 국가의 존망에 따른 러일전쟁을 극복한 '소년의 국가메이지'의 이야기로서, 오늘날의 일본과 같이 새로운 가치관의 창조에 고뇌하고 분투했던 메이지라는 시대의 정신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는 일본이 지금부터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커다란 힌트를 가져다줄 것이 틀림없다." 즉, 제국시대의 부활인 셈이다. 부국강병을 슬로건으로 언덕 위 파란 하늘의 구름(희망과 목표)을 향하여 하나로 뭉쳤던 메이지기의 일본적 정신을 이 대중

3) 시바 료타로의 영웅사관에 대해서는 「이복임(2012.5)」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영웅사관 재고(再考)—1960년대 역사소설의 주인공을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 韓國日本文化學會, 참조.

소설로써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4. 언덕 위의 구름과 청일전쟁

소설은 '정말로 작은 나라가 개화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一, p.7)⁵⁾로 시작하고 있다. 시바는 근대초기 국가 메이지 일본을 소국(小國)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시 열강들과의 사이에서 일본의 위치를 한층 극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국가체제가 미비했다는 상황을 함축시키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 이전시기까지 무사에 의한 계급사회이었다. 이때의 일본인들은 인권을 무시당한 채 자신이 속해있는 번(藩)에 충성만을 강요당하고 있었지만, 메이지기는 범람하는 서구문명 속에서 '국가'의 의미를 알게 해준 시대이기도 했다. 더구나 '장남감과 같은 소국으로 국가의 모든 기관이 허술했다'(二, p.34)는 묘사를 하며 국민 개개인은 '국가'라는 자각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국가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라고 믿고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서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메이지국가는 일본서민이 국가라는 것에 처음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집단적 감동의 시대였고, 말하자면 국가 그 자체가 강렬한 종교적 대상으로 되었다.(四, p.123)'라고 하며 시바는 메이지시대 '국가'의 의미를 봉건적 국가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며 당시 일본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었고, 이런 국민적 흥분이 절정에 달했던 것이 바로 전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전쟁이라는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 이때의 병사들은 국가의 위기를 구한다는 사명감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서술로 '쇼와기(昭和期)에 농후한 형태로 성립한 '천황의 군대'라는 헌법상의 사상은 요시후루(好古)의 시대에는 단순히 수사적인 것으로 다분히 '국민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편이 짙었다.'(六, p.449)고 하며 청일전쟁을 국민전쟁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요시후루는 아키야마 형제 중 육군군인으로 작품에

4) 『언덕 위의 구름』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金景鎬(2009.1)「일본 대중문학 속에서 왜곡되는 <조선>-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작품을 중심으로」『日本學研究』/ 김용범(2010.2)「메이지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국논단』/ 이복임(2011.5)「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러일전쟁론-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등이 있고, 일본에서는 中村政則(2009)『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 岩波書店. / 牧俊太郎(2009)『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なぜ映像化を拒んだか』, 近代文藝社. / 関川夏央(2010)『NHKスペシャルドラマ・ガイド『坂の上の雲』第一部』, 日本放送出版協会. / 中塚明 他(2010)『坂の上の』

5) 인용문은 이하 司馬遼太郎(2005)『坂の上の雲』(一)~(六), (株)文藝春秋, 新装版에서 발췌하였음.

서'일본기병의 아버지'로 불리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로 알려져 유명해진 인물이다. 이어서 청일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제 전쟁의 원인에 접촉해야만 한다.

원인은 조선에 있다고 해도 한국과 한국인에게 죄가 없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조선반도라는 지리적 존재에 있다. 원래, 반도국가라는 것은 유지가 어렵다. 이점에 있어서 유럽의 발칸반도나 아시아의 베트남이 증명해주고 있고, 마침 이 청일전쟁 직전에 베트남에 아주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청국이 베트남의 종주권을 주장하고 이 나라를 식민지로 하려고 했던 프랑스와 분쟁한 결과 청불전쟁이 일어났고 프랑سه군은 청국 푸젠함대를 전멸시켰고 육군에서도 청국은 연전연패했다. 1884년의 일이다. (중략) 일본은 보다 절실했다. 절실한 것은 조선에 대한 생각이다. 조선을 영유하려 했다가보다 조선을 다른 열강에게 빼앗길 경우 일본의 방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一, p.342~343)

시바는 발칸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싸웠던 크림전쟁이나 베트남에서의 패권을 다투던 청국과 프랑스 간 청불전쟁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일전쟁의 원인을 조선반도라는 지리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반도국가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지정학적(지리적)접근법이라는 면에서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2차 대전 시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 파시스트국가의 지도자들이 폴란드 등 인근제국(諸國)을 침략했을 때 합리화하려는 방법을 인용한 것으로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주체성은 배제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890년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외교정략론'에 의해 조선의 지배를 계속하여 추진해왔다. 그 때문에 이후 4년 뒤에 치러진 청일전쟁은 시바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의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시바는 이 지정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외부로부터 조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생명선으로써 필요했던 조선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본방위의 생명선으로써 조선반도를 중요시했다. 이 조선반도를 러, 청의 세력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문제가 쟁점이 되어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二, p.171)

조선이 일본의 국가적 이익과의 접점이다. (중략)

다른 열강이 중국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본은 조선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 가소롭게도 유신 후 30여년에는 아직 공업력은 유치한 단계에 있었고 팔 수 있는 상품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법만은 유럽 흉내

를 내려고 했다. 즉, 그것을 손쉬운 조선에서 하려고 했다. 그 흥내를 내다가보면 마침내 강국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문명 단계에서 조선은 일본의 생명선으로 되었던 것이다. (二, p.263)

위의 두 문장을 보면 시바는 근대초기국가가 경제적으로도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선의 확보가 중요했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 후 열강들은 청국을 조차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일본은 열강과 대등한 위치를 추진하기 위해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였고 그 발판으로 조선이 통로로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이지기의 국민국가건설에 이어서 재정적으로 궁핍했던 당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조선반도가 생명선으로써 필요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다른 열강들이 그렇게 했듯이 일본 또한 외적요소에서 야욕을 충족하려고 했다는 논리이다. 이렇듯 시바는 소국으로 표현되는 미개국가가 문명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전쟁의 필연성을 계속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러시아가 북동항확보를 위해 아시아국가로 진격해 왔던 것도 일본이 부국강병을 목표로 조선을 국가의 이익선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당시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하며 국가문명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 후 10년 뒤 러일전쟁이 발발한 원인도 지정학적인 면에서 모색하며 전쟁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그토록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역사의 단계가 지난 오늘날, 어쨌든 불합리한 쪽으로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도 보인다. 문제를 뒤집어 본질을 들추어낸다면, 러시아와 일본의 제국주의는 각도를 같이하고 있다. 러·일 쌍방이 대영제국을 모델로 하고 있듯이 그러한 근대적인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민지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만주를 탐내고 식민지가 없는 일본은 조선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이다. (二, p.352)

위의 인용문에서는 20세기 초 급변하는 동아시아정세 속에서 러·일 양국이 문명세계로 진입하기 위하여 영국을 모델로 하였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당시 국가들은 근대적인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 식민지를 필요로 했고, 그 때문에 러시아는 만주를 일본은 조선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식민지획득이 국가가 발전해나가기 위한 현상이라는 내셔널리즘 시각에서 전쟁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생명선으로써 조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국가의 본질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서술로 자국합리화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시바의 『언덕위의 구름』은 전후의 일본사회가 패전의식과 허탈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근대화의 부국강병을 목표로 성립된 메이지국가를 소국으로 표현하며 청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일본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이는 당시 고도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부합된 것으로 한층 일본인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바로 여기에 시바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써 침략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청일전쟁을 나라의 존망을 위해 온 국민이 참여했던 '국민전쟁'이라는 서술로 미화하고 있다. 이어서 러시아의 남침에 조선을 방어하는 것이 일본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임을 주장하며 자국보호를 위한 생명선으로서 '방위전쟁'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조선 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며 당시상황에 대해 일본이 제국주의국가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서술로 전쟁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듯 시바가 청일·러일전쟁의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전쟁으로 얼룩진 일본근대국가를 패전국가라는 인식에서 승전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영광스런 메이지국가를 찬양하고 메이지일본인의 자긍심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전의 황국사관을 국민사관으로 내세우려는 목적의식을 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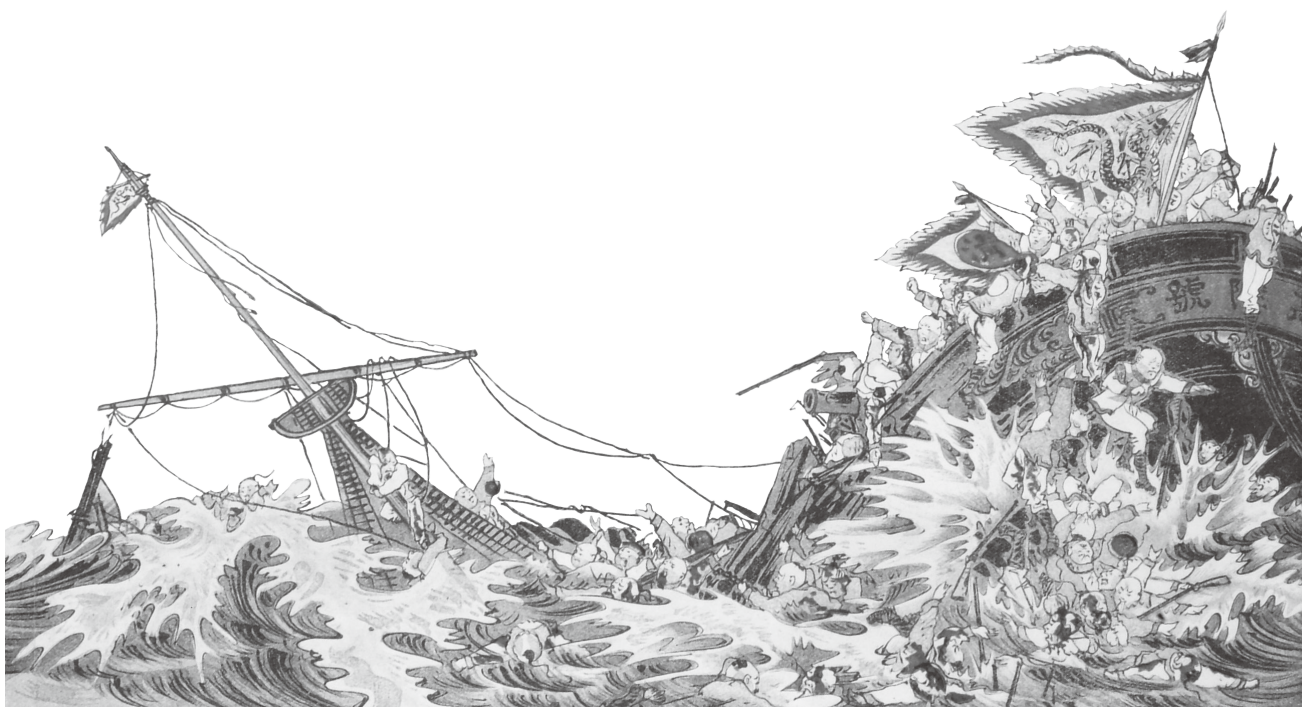
이러한 시바사관이 내재된 작품을 일본국영방송은 영상화하여 전파하고 있고, 교육계의 우익보수파들이 사관개혁을 위하여 시바의 역사관을 역사교과서 개편운동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역사학자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는 시바를 논하는 것은 일본문화를 논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를 가미사마(神様)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저야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 민주신보(大阪民主新報) 편집장이었던 마키타로(牧俊太郎)는 시바가 이 작품을 영상물로 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TV드라마로 방영되었던 것은 정치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시바의 역사관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최석완 외(2009)『근현대 한일관계와 국제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関川夏央(2010)『NHKスペシャルドラマ・ガイド「坂の上の雲」第一部』, 日本放送出版協会.
- 中塚明 他(2010)『「坂の上の雲」の歴史認識を問う』-日清戦争の虚構と真実, 高文研.
- 中村政則(2009)『「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 岩波書店.
- 牧俊太郎(2009)『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なぜ映像化を拒んだか』, 近代文藝社.
- 原田敬一(2007)『日清・日露戦争』, 岩波新書.
- 北影雄幸(2005)『「坂の上の雲」の正しい読み方』, 光人社.
- 高橋誠一郎(2005)『司馬遼太郎の平和観』, 東海教育研究所.
- 司馬遼太郎(2005)『坂の上の雲』(一)~(六), (株)文藝春秋(新装版).
- _____(1994)『明治という国家』(上), 日本放送出版協会.
- 吉川圭三(1990)『国史大辞典』第十一卷,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
- 이복임(2012.5)「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영웅사관 재고(再考)—1960년대 역사소설을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 韓國日本文化學會.
- _____(2011.5)「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러일전쟁론—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 韓國日本文化學會.
- 김용범(2010.2)「메이지제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국논단』, 한국논단.
- 金景鎬(2009.1)「일본 대중문학 속에서 왜곡되는 <조선>—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작품을 중심으로」『日本學研究』,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 山田朗(2010.2)『「坂の上の雲」が語らない真実』(上)『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會.
- _____(2010.3)『「坂の上の雲」が語らない真実』(下)『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會.
- 本多勝一(2010.3)「司馬遼太郎の『坂の上の雲』と朝鮮半島」『週刊金曜日』, 金曜日.
- 山内昌之(2009.12)「司馬さんはなぜ『坂の上の雲』を書いたのか」『文芸春秋』, 文藝春秋社.
- 鷲田小彌太(2004.10)「司馬史観が独り歩きを始めている」『サピオ(Sapio)』, 小学館.

이인직 신소설 『혈(血)의 누(淚)』에 반영된 청일전쟁과 아시아주의 담론

서은선(前 부경대학교)



이인직 신소설 『혈(血)의 누(淚)』에 반영된 청일전쟁과 아시아주의 담론¹⁾

서은선(前 부경대학교)

1. 신소설 『혈(血)의 누(淚)』와 문학적 기록

2. 청일전쟁과 아시아주의 담론 반영

- 1) 백성의 수난 확대 구성과 계몽 담론
- 2) 전황 축소 구성
- 3) 아시아주의 담론 축소 구성

3. ‘일청전쟁’과 서사적 거리

『혈의 누』 줄거리

청일전쟁 평양성 전투로 인해 옥련이는 총알을 맞았다가 일본군에게 구출된다. 부모와 헤어진 것을 알게 된 일본군 정상(井上) 군의는 옥련이를 대판(大阪) 그의 집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나 군의는 곧 전사했고, 그의 옥련이를 삼 년여 키워 주면서 심상소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양모가 개가를 결심하 아내가 자, 버림 받게 된 옥련이는 항구에 죽으러 가지만, 부모 꿈을 꾸자, 남의 집 하인으로라도 버티겠다고 동경행 기차를 탄다. 기차 안에서 비국으로 유학가는 십 칠세 소년 구완서가 옥련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포애로 학비를 대겠다고, 옥련이를 미국으로 데려간다.

둘은 상항(桑港)에서 말 통하는 사람이 없어 헤매다가, 길에서 청국 개혁당 강유위(康有爲)를 만나 그의 명함 소개 덕분에 옥련이는 화성돈(華盛頓)에서 고등여학교를 다니게 된다. 한편 옥련이의 아버지 김관일은 아내가 죽은 줄 알고, 미국으로 유학왔다가, 옥련이의 우등 졸업 기사를 보고, 헤어진 지 10 년 만에 딸과 재회하게 된다. 은인 구완서와 딸의 혼인 연약을 주선하는데, 구완서는 함께 공부를 더하여 고국에 가서 결혼하고, 옥련이가 조선 부인 교육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다. 평양성 북문 안 게딱지만한 집에서 최씨 부인은 딸 옥련이의 편지를 받고 만날 날만 고대한다.

1) 출전 : 서은선 · 윤일, 『이인직 신소설 『혈의 누』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제 16집)

1. 신소설 『혈(血)의 누(淚)』와 문학적 기록

국초 이인직(菊初 李人植: 1862-1916)이 신소설 『혈(血)의 누(淚)』를 신문 <만세보(萬歲報)>에 1906년 연재하고 이듬해 단행본으로 출판한 지가 100년이 지났다.

이인직이 『혈의 누』에서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민중에게 전달한 서사와 담론은 애국 계몽기의 문학적 업적이었다. 이인직이 『혈(血)의 누(淚)』를 썼던 1906년은 한국이 러일전쟁(1904)의 승리자 일본의 보호국이 된(1905) 직후의 시기였다.

한국은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후(광무개혁),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으로 인해 망국(亡國)의 위기에 처한 만큼, 이후 1910년까지의 시기는 애국계몽기라고 부를 만큼 자강(自強)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증대되었다. 자강의 방편으로 '문명개화론'이 힘을 얻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한국은 외형상으로는 대한제국이라는 왕정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서구식 근대 국민국가로 재편되어야만 했다. 이때 국민국가란 전제왕권 체제의 봉건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종래의 '책임 없는 백성'이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국민'으로 구성되는 국가라는 뜻이다.

이 시기 계몽의 대상은 전(全) 인민(人民)이어야 했다. 그래서 국민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에서처럼 언문일치식 문자 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²⁾ 이 문자 개혁에서 국주한종(國主漢從)의 혼용체와 띄어쓰기가 장려되었다..³⁾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 쓰이는 구어를 국문체로 표기하여 민중의 정치적·사회적 현실 인식을 돕는 '언문일치'의 문체가 필요하였다. 이때 백성들에게 다가간 글이 『혈의 누』를 비롯한 신소설이다.

그런데 『혈의 누』의 문체에 관해서는, 문학사에서 그 의의를 인정한 지가 오래되었지만,⁴⁾ 혁신적 주제인 반(反)봉건적 문명개화론은 결과적으로 친일 의식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현대에 올수록 비판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 신문 기사나 논설 같은 계몽적 글쓰기를 이인직의 신소설 쓰기 방식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기도 하지만,⁵⁾ 소설에서 실제 사건과 현실은 화자(話者)의 서술이나 문학적 메타포 기법에 의해 확대·과장 혹은 축소·요약되는 서사 구성을 거치면서 서사적 거리가 형성되는 문학적 기록이므로, 기사와 논설과는 글 쓰기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언문일치체에 관한 일본의 영향에 대해서는 김채수, 『한국과 일본에서의 언문일치 운동의 실상과 그 의미』, 김채수 편저 『일본과 한국의 근대 언문일치체 형성과정』, 보고사, 2002, 17-20쪽 참고.

문체와 국민국가 지향과의 관계는 정병호 『한국과 일본의 <신문> 저널리즘과 언문일치 운동』, 김채수 편저, 위의 책, 92-102쪽 참고.

3) 근대계몽기 문체에 대해서는 김윤식, 『개화기와 문체』,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90재판, 188-191쪽 참고

4) 송민호, 『한국개화기 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6, 198쪽, 202쪽

5) 구장룡은 이인직 신소설을 신문학(新聞學)적 글쓰기 방식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장룡,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 문학과 사상연구회 편, 『근대계몽기 문학의 재인 식』, 소명출판사, 2007, 191-194쪽, 210-213쪽 참고.

그러나 『혈의 누』가 친일소설로 분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논문은 최원식의 「애국계몽기의 친일문학-『혈의 누』 소고」(『한국학보』 36집, 1984)라고 할 수 있다.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286-302쪽 참고

이인직이 친일 성향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계몽기 독자들이 얻은 감동의 원천은 여기에 있다. 『혈의 누』 연구에서 이인직이 쓴 ≪미야코(都)신문≫ 논설도 참고로 하였다.⁶⁾

2. 청일전쟁과 아시아주의 담론 반영

『혈의 누』는 청일전쟁을 문학적으로 기록하면서,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계몽 담론, 즉 신교육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명개화론을 펼쳤다.

청일전쟁(1894)은 동학농민군이 정부의 제의로 휴전을 한 이후, 고종의 요청으로 한반도에 출병했던 청(淸)군과 조선을 영향권에 두기 위해, 텐진(天津)조약(1885)을 핑계로 한반도에 출병한 일본군 간에 일어난 전쟁이다.⁷⁾

『혈의 누』의 문학사적 의의를 본다면, '일청전쟁'이란 표현으로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정치소설의 면모가 있다는 점이다.⁸⁾ 한편 '우리 민족의 한'을 리얼하게 묘사했다면서, 김 현(金顯)은 청일전쟁과 결부하여 의의를 두었다.⁹⁾ 1990년대 연구서인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개인의 운명이 청일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결정되고 변화함을 포착한 데 있다. 사회 속에 개인의 문제가 탐구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⁰⁾ 이렇게 볼 때 『혈의 누』에서 청일전쟁 모티브가 서사를 진행하고 플롯을 구성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서사 이론상 작가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작가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건의 순

6) 이인직은 일본의 자유당을 창당한 이타가키가 건립한 동경정치학교를 3년간 수학하고 졸업을 하였다. 실습을 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당시 미야코(都)신문사에서 견습기자로 기사를 작성하곤 하였는데, 다지리 히로유키가 이 자료를 찾아 번역·소개하였다. 다지리 히로유키, 『이인직 연구』자료, 국학자료원, 2003.참고.

이인직의 가계에 대해서는 최중순, 『이인직 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8) 참고

7) 이기백, 『한국사 신문(개정판)』, 일조각, 1980, 327-395쪽 참고.

8) 김윤식, 『정치 소설의 결여 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근대소설사 연구』, 을유문화사, 1986, 29쪽

9) 김 현(金顯), 『현대소설의 담론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5, 168-171쪽.

10)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년 89쪽.

서나 비중·분량 등을 조정하게 마련이다. 필자는 프랑스의 서사 이론가 주네트가 서사에서 사건(모티프)의 순서·지속·빈도를 분석한 데 착안하여, 『혈의 누』의 서사 구성과 계몽 담론을 분석할 것이다.¹¹⁾

『혈의 누』는 계몽에 도움이 될 만한 백성의 수난사에 대해서는 확대 구성을 하고, 전황의 기록이나 기타 정치적 현실 상황 부문은 축소 구성하여, '백성의 자각과 성장'이라는 계몽적인 주제 전달을 극대화하려고 했다.

1) 백성의 수난 확대 구성과 계몽 담론

백성의 수난 확대 구성은 가족 이산(離散)으로 시작된다. 『혈의 누』 서두에 청일전쟁의 피난길에 아이를 잃어버린 젊은 부인이 나타나는데, 서사의 발단에 해당되며, 이후에는 시간 순서가 역전되어 자세한 과거 설명이 잇따르고 있다.

일청전쟁의 총소리는 평양 일경이 떠나가는 듯하더니, 그 총소리가 그치매 사람의 자취는 끊어지고 산과 들에 비린 티끌뿐이라.

평양성의 모란봉에 떨어지는 저녁별은 누엿누엿 넘어가는데,.....

"옥련아, 옥련아,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으면 죽은 얼굴이라도 한 번 다시 만나보자....."

(『혈(血)의 누(淚)』, 13쪽, 이하 텍스트; 굵은 글씨체 필자, 이하 같음)¹²⁾

성중에는 울음 천지요, 성밖에는 송장 천지요, 산에는 피난꾼 천지라, 어머니가 자식 부르는 소리, 서방이 계집 부르는 소리, 계집이 서방 부르는 소리, 이렇게 사람 찾는 소리뿐이라. 어린아이를 내버리고 저혼자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두 내의 손을 맞붙들고 마주 찾는 사람도 있더니, 석양판에는 그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없던지 보이지 아니하고, 모란봉 아래서 옥련이 부르고 다니는 부인 하나만 남아 있더라. (텍스트, 18쪽)

첫머리에서 이렇게 시작한 텍스트는 "철환이 공중에서 우박 쏟아지듯 하고 총소리는 평양성 근처가 다 두려빠지고 사람 하나도 아니 남을 듯한 날"에 청·일 양군의 평양성 마지막 전투로 인하여 피난 가다가 줄지에

11) 제라르 주네트(권택영 역), 『사담론』, 교보문고, 1992, 23-148쪽 참고.

12) 텍스트는 이인직 원작, 신세훈 해제 『한국대표신소설』, 금자당, 1982. 1907년 광학서포에서 출간한 단행본 『혈(血)의 누(淚)』를 저본으로 한 것이지만, '·'를 'ㅏ'로 표기하고 '옥련'도 '옥련'으로 표기하는 등 현대식 표기를 하였다.

아이와 남편과 생이별하게 된 최춘애의 수난의 연유를 '증언'하고 있다.¹³⁾ 아이 잃은 최춘애는 불측한 농민에게 겁탈을 당할 뻔 하고, 계엄 중이라는 이유로 밤새 일본 진중에 연금되는 바람에 남편과도 이별하게 되어 '젊은 생과부'가 되는 가혹한 수난을 겪게 된다. 확대 구성에 의해 백성의 수난은 플롯의 전개 부분에서도 계속된다. 그래서 수난은 최춘애 만의 몫이 아니라, 일곱 살 여아 옥련이와 남편 김관일도 함께 겪는 고통이 되며, 부녀는 각각 일본·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이산(離散)가족이 되고, 이들이 재회할 때까지는 십 년 세월이 걸리는 가혹한 한(恨)의 세월이 된다.

텍스트에서 수난의 결과, 백성들은 국난(國難)임을 실감하고 변모하게 된다.

딸 최춘애를 찾으러 온 아버지 최 주사는 딸의 유서를 본 후, 국난임을 인식하면서, 애국해야 함을 자각하게 된다.

"난리가 무엇인가 하였더니 당하여 보니 인간에 지독한 일은 난리로구나. 내 혈육은 딸 하나, 외손녀 하나뿐이러니 와서 보니 이 모양이로구나. 막둥아, 너같이 무식한 놈더러 쓸데없는 말 같지마는 이후에는 자손 보존하고 싶은 생각 있거든 나라를 위하여라. 우리나라가 강하였다면 이 난리가 아니 났을 것이다." (텍스트, 26쪽)

남편 김관일도 외세로 인해 백성이 겪는 수난에 대해 같은 처지임을 인식하고 국민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게 되며, 국난임을 실감하게 된다.

'엎들어지고 곱들여져서 봄바람에 떨어진 꽃과 같이 간 곳마다 발에 밟히고 눈에 걸리는 피난꾼들은 나라의 운수련가. 제 팔자 기박하여 평양 백성 되었던가. 땅도 조선땅이요,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 (텍스트, 18쪽)

그래서 국난임을 자각한 인물들에게 자강(自強)의식은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작가는 텍스트에서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자강의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신교육 운동의 수용이었다.

이 사회진화론은 스펜서의 사회유기체설이 국가유기체설로 발전한 것으로, '힘'과 '경쟁', '적자생존' 등을 강조하던 진화론에서 점차 우승열패(優勝劣敗), 부국강병과 국가 간의 경쟁을 강조하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는데,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와 청국의 량 치차오의 이론을 통해 한국에 전파되었다.¹⁴⁾ 이 담론은

13) 『혈의 누』는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는 '증언소설'의 특성이 있다. 증언소설의 이론은 정찬영의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예림기획, 2000)를 참고.

14) 이러한 사회진화론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 초기에 가토 히로유키가 국가 우선의 이데올로기로 이론화하였고, 량 치차오(梁啟超:1873-1929)

국민을 교육시켜 국가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신교육 운동으로 발전하였다.¹⁵⁾

김관일이 국난(國難)의 극복은 외국 유학에 있다고 여기며, 유학가기로 결심을 하는 장면은 사회진화론에 토대를 둔 작가의 신교육론을 전달하기 위한 구성으로 텍스트의 대표적인 계몽 담론이 된다.

오냐 죽은 사람은 하릴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이후에 이러한 일을 또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세상에 뜻이 있는 남자 되어 처자만 구구히 생각하면 나라의 큰일을 못하는 지라. 나는 이 길로 천하 각국을 다니면서 남의 나라 구경도 하고 내 공부 잘한 후에 내 나라 사업을 하리라,하고 밝기를 기다려서 평양을 떠나가니, 그 발길 가는 데는 만리 타국이라. (텍스트 19-20쪽)

한편 열한 살이 된 옥련이가 다시 버림받게 되었을 때, 은인으로 등장한 열일곱 살 소년 구완서도 청일전쟁 이후 국민으로 깨어난 인물이다. 그는 청일전쟁으로 수난을 겪은 옥련이에게 동포애를 느끼면서 학비 후원을 약속하고, 교육으로 더 큰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신교육 사상을 내세운다.

"오냐, 학비는 염려 말아라. 우리들이 나라의 백성 되었다가 공부도 못하고 야만을 면치 못하면 살아서 쓸 데 있느냐. 너는 일청전쟁을 너 혼자 당한 듯이 알고 있나 보다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당하지 아니한 일이나. 제 곳에 아니 나고 제 눈에 못 보았다고 태평성세로 아는 사람들은 밥벌레라. 사람이 밥벌레가 되어 세상을 모르고 지내면 몇 해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청전쟁 같은 난리를 당할 것이라. 하루바삐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부인 교육은 네가 맡아 문명 길을 열어 주어야," (텍스트 46쪽)

한편, 작가가 백성 수난 모티프를 확대 구성하면서 최 주사나 김관일, 구완서의 발언을 통해 '나라의 큰 일', '내 나라 사업', '우리나라 사람' 혹은 '나라의 백성',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독자들이 국가를 의식하고 국민임을 자각해야 하며, '남의 나라' '일청전쟁 같은 난리'라는 용어 또한 외세를

가 무술개혁(戊戌變法)의 실패로 일본에 망명한 후 가토의 영향을 받아 사회진화론을 수용·전파하였던 것이다. 박노자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일본에서 출판되었고(1895) 1896년 이후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했으며, 『경쟁론』 같은 미발표 원고는 널리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량 치차오의 사회진화론이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 박노자, 『우승優勝 열패劣敗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5, 263쪽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사상에 관해서는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 아카데미, 1996, 20-32, 82-84, 129-133쪽 참고.

15) 이인직은 일본 유학 중에 사회진화론을 국가주의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관하면 아마도 인간의 활동은 생존경쟁에 다름 아니다. 다름의 작은 것으로 본다면, 방국(邦國)을 가지고 종족(種族)을 가지고 한다. 그 결과는 모든 우승열패일 뿐이니, 열등한 것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 이족인 구미인의 감축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겠고, 또한 동족인 일본인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인직, 『한국신문 창설 취지서』, 다지리 히로유키, 같은 책, 305쪽

인식해야 한다는 작가의 계몽 담론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한제국 시대가 전제 왕정 체제였지만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했던 근대계몽기의 사상적 흐름에 작가 이인직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백성 자각 모티프는 이인직이 1902년 『미야코(都)신문』에 썼던 논설 『한국실업론』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지금부터 십여 년 전 한국 정부는 일본인에게 제주도의 채복권(採穫權)을 허락했다. 이에 대해 제주인은 소장노약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격노하여 말하기를 채복은 우리 제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 제주 목사를 핍박하고 한편에서는 일본인에게 저항하는 준비를 하고 도민 모두 죽을 각오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인민이 있고 하늘이 준 산물이 있는데 나머지 정치만 좋은 것을 얻으면 한국의 산업이 흥기하는 데 어찌 어려울 까닭이 있겠는가.¹⁶⁾

이인직은 제주도 백성의 저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부원(富源)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았다. 백성에 대한 이러한 희망이 텍스트에서 국민 자각 서사를 구성한 문학적 원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백성 수난을 확대한 서사 구성이기 때문에 『혈의 누』는 전쟁으로 백성이 겪는 수난을 일상 구어체로 상세하게 장면 제시하면서 지속 시간을 늘이고 있다. 또한 백성의 삶을 기록하고 성장을 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왕조시대의 관료·양반 중심의 봉건적 시각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것이므로, 반(反)봉건 내포가 신소설 『혈의 누』를 고(古)소설이나 근대계몽기 구(舊)소설, 영웅을 앞세우던 역사전기체 소설과는 구분된다.

이처럼 『혈의 누』에서 백성의 수난을 확대하여 국민 자각을 이끌어낸 서사 구성은 당시 독자들에게 반봉건적인 신교육 계몽 담론을 전달하는 문학적 효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전황 축소 구성

『혈의 누』의 서사 구성을 볼 때 작가가 백성의 수난을 보여주면서 민중의 신교육을 역설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과는 달리, 청일전쟁의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장면 제시가 거의 없이, 화자(話者)의 요약 서술만으로 그치는 축소 구성을 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이면에는 신흥 공업국으로 도약한 일본의 철저한 전쟁 준비가 있었다. 개전의 명분을 만든 이가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 신봉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이다. 그는 『탈아론(脫亞論)』과 부국강병론

16) 이인직, 『한국실업론』 하, 다지리 히로유키, 같은 책 자료, 311쪽집)

을 주장하면서 갑신정변(1884년)의 실패 이후 조선에 적극 개입할 것을 주장하며 일본정부에게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⁷⁾ 특히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1885년) 이후 일본 정부는 유사시 한국에 출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정부의 내정 개혁안 거부 배경에는 이홍장과 원세개의 교사가 있다고 파악하고, 중국은 더 이상 일본의 '붕우(朋友)'가 아니므로 청과의 개전을 촉구하고, 서구 열강도 일본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쟁이 비록 청일 간에 벌어졌으나 전쟁의 기원은 문명개화의 진보를 도모하는 측과 진보를 방해하는 측의 전쟁이라고 선전하면서, 청일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 혹은 종교전쟁으로 옹호하였다.¹⁸⁾

이인직은 공식적으로는 1900년 2월부터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유학생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인직이 일본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까닭에 친일했다는 주장도 있다.¹⁹⁾, 그렇다면 일본의 승리에 동조하고, '문명의 승리'로 서술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이인직은 텍스트에서 일본군의 승리의 진격을 반기는 장면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문명의 승리'라는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일본군의 승리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요약 서술하고, 문학적 메타포를 사용하여 축소 구성하려고 하였다.

당시 청일전쟁의 전개 상황을 보면 일본 해군이 아산만 근처에서 중국 수송함을 선제공격한 후(1894. 7월 25일), 청국의 북양 함대는 최신식 전함인 '정원', '진원'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해와 웨이하이웨이(威海)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결국 요동 반도의 뤼순(旅順)항에서 퇴각하였는데 (1894. 11월 21일), 그 이유는 군비 부족으로 포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때 일본군은 뤼순에서 대학살을 하였다. 또한 청 육군은 일본에게 밀려 단기간에 평양성에서 도망쳐(1894. 9월 15일) 단둥까지 패퇴하였는데, 역시 군비 부족으로 칼·창·구식 소총 등으로 싸웠다고 한다. 그 결과 청국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빼앗기고,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에게 할양하는 굴욕적인 시모니세키(馬關)조약을 맺게 되었다.(1895. 4월 17일)²⁰⁾

이러한 전쟁 상황에 대해 작가는 텍스트에서 상세한 기술을 전혀 하지 않고, 화자(話者)의 목소리로 일본군의 승리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군의 횡포에 대한 비난도 자제하는 등 축소 구

17) 후쿠자와는 초기에 일본의 유럽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를 문명국(유럽과 미국) 반개국(일본, 중국 및 아시아) 야만국(아프리카)로 나누고 야만에서 반개국으로 반개국에서 문명국으로의 발전 단계설을 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과 중국이 “만약 정치를 개혁하고 인심을 일신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지금부터 수년을 지나지 않아 멸망할 것이며, 세계 문명국의 분할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갑신정변 실패 후 발표한 『탈아론(脫亞論)』(1885)에서 “중국과 조선을 대하는 방법도 이웃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특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서양인이 (이들을)대하는 방식에 따라 처분할 뿐이다. 악우와 가까이 지내는 자는 함께 악명을 떨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심으로 아시아 동방의 악우를 사절한다”고 단언했다. - 이성환, 『근대 일본의 전쟁과 아시아 인식』, 『국제학논총』 6권,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1, 1-2쪽 참조.

18) 최덕수, 『청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관』, 『사총』 제30집 1호, 고대 사학회, 1986, 203- 214쪽 참고

김영작에 의하면, 갑신정변 후 망명한 김옥균을 홍종우가 상해에서 암살하자(1894), 일본 정부도 김옥균의 시신을 한국 정부에 내어주어 능치처참하도록 방관한 청국을 야만의 이미지로 몰고 가면서, 청일전쟁이 문명 전쟁인 것처럼 여론을 이끌었다고 한다.-김영작, 「김옥균 암살사건과 한·청·일 삼국-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11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5. 245쪽.

19) 함태영 「이인직의 현실인식과 그 모순」 『문학과 사상연구회 편, 『근대계몽기 문학의 재인식』, 236-242쪽 참고.

20) 『동아원세세계대백과사전』 26권, 동아출판사, 1983 ; 네이버 지식 검색 참고.

성하고 있다.

(1) 일본군 승리 축소 구성

① 그날은 평양성에서 싸움 결말나던 날이요, 성중의 사람이 진저리내던 청인이 그림자도 없이 다 쫓겨나가던 날이요, 철환은 공중에서 우박 쏟아지듯 하고 총소리는 평양성 근처가 다 두려빠지고 사람 하나도 아니 남을 듯하던 날이요.....(중략) 오늘 새벽부터 총소리는 천지를 뒤집어 놓고 사면 산꼭대기들 가운데에 불비가 쏟아지니(텍스트, 17쪽)

② 그때는 평양성 중에 살던 사람들이 이번 불 소리에 다 놀라 달아나고, 있는 것은 일본 군사뿐이다.
(텍스트, 20쪽)

분량이 불과 몇 줄인 ① ② 의 이러한 요약 서술에서, 청일전쟁의 전황 뿐 아니라 일본의 승리 자체가 의도적으로 축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당초에 옥련이가 피난 갈 때에 모란봉 아래서 부모의 간 곳 모르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난 데 없는 철환 한 개가 넘어오더니 옥련의 왼편 다리에 박혀 넘어져서 그 산에서 목숨이 붙어 있었더니, 그 이튿날 일본 적십자 간호수가 보고 야전 병원으로 실어 보내니 군의(軍醫)가 본즉 중상은 아니라, 철환이 다리를 뚫고 나갔는데 군의 말이, 만약 청인의 철환을 맞았으면 철환에 독한 약이 섞인 지라 맞은 후에 하룻밤을 지냈으면 독기가 몸에 많이 퍼졌을 터이나, 옥련이가 맞은 철환은 일인의 철환이라 치료하기 대단히 쉽다 하더니, 과연 삼 주일이 못 되어서 완전히 평일과 같은지라. (텍스트, 29쪽)

③의 인용은 일본군의 무기가 최신식이라는 점을 일종의 문학적 메타포로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탄환은 납 성분이 섞여있으므로 '독한 약'은 납독을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승리한 일본군의 탄환의 우수함을 요약 서술하는 메타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²¹⁾

21) 최중순은 텍스트에서 옥련이가 일본군의 총알에 맞았다는 모티프와 일본의 양모인 정상(井上) 부인에게 버림받는 모티프 구성을 두고, 작가 이인직이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근대적인 독립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선도하고 보호하여 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중순, 『이인직 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110쪽 참고.

서사 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군의(軍醫)가 옥련이를 구출해야만 옥련이가 일본에서 양육 받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된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서사 공간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전황의 결과인 일본군의 승리를 기술했던 것이며, 문명개화론을 적극 주장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이지, 일본군의 승리를 옹호하는 입장의 표명은 아닌 것이다.

④ 화약 연기는 구름에 비 묻어다니듯이 평양의 총소리가 의주로 올라가더니 백마산에는 철한 비가 오고 압록강에는 송장으로 다리를 놓는다.(텍스트, 23쪽)

⑤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요동 반도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아씨, 우리 일본은 싸움할 적마다 이기니 좋지 아니하옵니까. 에그. 우리나라 군사가 이렇게 많이 죽었나. 아씨, 이를 어찌하나. 우리 덕 영감께서 돌아가셨네. 만국공법에, 전시에서 적십자기 세운 데는 위해치 아니하더니 영감께서는 군의시언마는 돌아가셨으니 웬 일이오니까." (텍스트, 35쪽)

화자가 전투 전황을 이처럼 종결하면서, 위의 인용 ⑤의 경우에는 승리자 일본도 전사자가 많다는 식으로, 특히 군의조차 죽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일본의 승전 자체를 축소 서술하고 있다.

결국 텍스트에서 작가가 일본의 승리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화자의 전황 축소 구성으로 표출하여 오로지 외세에 의한 수난 그 자체임을 부각하려는 문학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화자는 이런 입장을 아래 인용 ⑥의, 전쟁 중 청일 양군 사상자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조선인들의 죽음만 애통해 하는 김관일의 목소리로 밝히고 있다.

⑥ '북문 밖 넓은 들에 철환을 맞아 죽은 송장과 죽으려고 숨 넘어가는 반송장들은 제 나라를 위하여 전장에 나와서 죽은 장수와 군사들이라 죽어도 제 직분이거니와.....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텍스트, 18쪽)

(2) 일본군 횡포 축소 구성

외세의 침입에는 외국군의 횡포로 인한 민간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기 마련이다. 작가가 청일전쟁을 기록해서 증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이 부분이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작가는 외국군의 횡포를 서술하는 것에도 소극적이다. 그래서 텍스트 전체에서 구체적인 장면 묘사 없이 아래 ① ②의 인용이 전부일 정도로 지극히 요약 서술하고 있으므로 축소 구성이 된다.

① 산중에서는 청인 군사를 만나면 호랑이 본 것 같고 원수 만난 것 같다. 어찌하여 그렇게 감정이 사나우냐 할 지경이면, 청인의 군사가 산에 가서 젊은 부녀를 겁탈하고, 돈이 있으면 빼앗아가고, 제게 쓸 데없는 물건이라도 놀부의 심사같이 장난하니,(텍스트, 17쪽)

② 있는 것은 일본 군사뿐이다. 그 군사들이 까마귀떼 다니 듯하며 이 집 저 집 함부로 들어간다. 본래 전시국제공법(戰時國際公法)에, 전장에서 피난 가고 사람 없는 집은 집도 점령하고 물건도 점령하는 법이라. 그런 고로 군사들이 빈 집을 보면 일삼아 들어간다. (텍스트, 20쪽)

그런데 화자가 ②의 서술에서, ①의 청군의 횡포 서술에 비해, 일본군의 빈 집 약탈을 '전시국제공법'이란 거창한 명분을 붙여 옹호했으며, 필경 그 이상 저질렀을 횡포는 지적하지 않아, 작가 이인직의 친일 성향을 증명하는 근거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②는 일본군이 평양성 사람들에게 큰 횡포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옹호하는 서술이 아니다. 여기서 '까마귀떼'는 우리의 관습상 불길한 죽음의 상징으로, 물리쳐야 할 존재이다. 그래서 ②의 인용은 일본군이 '전시국제공법'이란 거창한 명분으로 평양성 빈 집을 약탈하는 '두려운' 점령군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문학적 메타포로 볼 수 있다.

청국은 1·2차 아편 전쟁으로 1860년 남경이 함락당했지만, 일본은 미 함대의 침입으로 위기를 느끼면서 메이지 혁명(1868년)과 근대화를 이루어, 문명개화의 표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②는 일본군의 승리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느껴서 직설적인 비난을 자제한 것일 수도 있고, 일본군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암시를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작가의 '두려운' 일본군에 대한 심리는 아래의 인용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평양 사람이 일병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일병(日兵)은 어떠한지, 임진 난리에 평양 싸움 이야기하며 별 공론이 다 나고 별 염려 다 하던 그 일병이 장마통에 검은 구름 떠 들어오듯 성내·성외에 빈틈없이 들어와 박히던 날이라.(텍스트, 17쪽)

'임진왜란 때의 평양 싸움 이야기하며 별 공론이 다 나고 별 염려 다 하던'이란 표현은 한 마디로 일본군이 두렵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장마통에 검은 구름 떠 들어오듯'의 표현은 장마철처럼 불안하다는 의미이며 반감지 않다는 표현이다.

참고로 ②의 문학적 메타포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본군이 평소 훈련이 철저한 강군(強軍)임을 인식하

여 쓴 작가의 논설 『설중 참사(雪中 慘死)』(1902.2.6.)이다. 일본군의 참사를 애도하면서도 그 군기(軍紀)에 감탄하고 있다..²²⁾

이밖에 논설 『한국 신문 창설 취지서』(1903)도 참고로 할 수 있다.

대관하면 아마도 인간의 활동은 생존경쟁에 다름 아니다. 다름의 작은 것으로 본다면, 방국(邦國)을 가지고 종족(種族)을 가지고 한다. 그 결과는 모든 우승열패일 뿐이니, 열등한 것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 이족인 구미인의 감촉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겠고, 또한 동족인 일본인 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혼자 생각건대, 그 존송하는 문명국인에게 향해서 악감정을 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불이익도 비할 바가 없다. 나는 천식(淺識)을 가지고 함부로 큰소리로 말하기를 국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국민을 인도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싶다..²³⁾

3) 아시아주의 담론 축소 구성

텍스트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인직이 아시아주의 담론을 최소한으로 요약해서 전달하는 서사 구성에 있다. 한편으론 비중을 최저한도로 축소하면서 무엇 때문에 구태여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텍스트 서사의 클라이맥스는 옥련이가 십 년 만에 미국에서 아버지 김관일과 재회하며, 은인인 구완서와 혼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된다. 옥련이 개인의 고난과 고통은 일단락되고 행복한 미래가 올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구완서는 혼인 언약을 하면서 옥련이에게 함께 공부를 더 하고 귀국하자고, 그 포부를 밝힌다.

①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 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따름이라. (텍스트, 57쪽)

22) 팔갑전(八甲田) 산중에서 눈이 와서 삼일간의 행군 동안에 139명이 얼어 죽으면서도 행렬을 이탈하지 않은 71명의 일본군 병사, 그렇게 혼란된 군대에 대해 이인직이 마음 깊숙이 전율을 느끼고 ‘두려운’ 일본군으로 각인하는 원형으로 삼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지리 히로유키, 같은 책 자료, 278쪽

23) 다지리 히로유키, 같은 책 자료, 305-306쪽 참고

② 세상에 제 목적을 제가 자기 하는 것같이 즐거운 일은 다시 없는지라. 구완서와 옥련이가 나이 어려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라. 조선 사람이 이렇게 야만되고 이렇게 용렬한 줄을 모르고, 구씨든지 옥련이든지 조선에 돌아오는 날은 조선도 유지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학문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를 찬성하여 구씨도 목적대로 되고 옥련이도 제대로 조선 부인이 일제히 내 교육을 받아서 낱낱이 나와 같은 학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생기려니 생각하고, 일변으로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제나라 형편 모르고 외국에 유학한 소년 학생 의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텍스트 57쪽)

요컨대 인용 ① ②에서 작가는 청일전쟁이 조선에 미친 정치적 영향, 즉 전쟁의 결과를 기록해야 할 의무를 떠올린 것처럼, 청일전쟁의 정치적 결과도 함께 삽입하여 서사를 종결지으려 하였다. 그 결과 근대계몽기 지식인 사회의 정치 담론인 '아시아주의' 담론이 삽입된 것이다. 『혈의 누』가 정치소설의 면모를 지녔다면 이런 서사 구성에서 실감이 난다.

인용 ① ②는 작가 이인직이 보고하는 청일전쟁의 정치적 결과이다. '일청전쟁'이 끝난 지 십 년이 되자 러일전쟁을 겪고 일제의 보호국이 된 대한제국의 정치적 현실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 서술한 축소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인용 ①은 미국 유학생 구완서의 원대한 포부가 담긴 발언을 화자가 전달하는 것으로, 꼭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 '연방도' 발언이 '아시아주의' 담론에 해당된다.

아시아주의 담론의 시발점은 타루이 토기치(樽井藤吉)의 『대동합방론』(1893 ; 1885 초고)으로, 일본·한국·청국의 삼국 공영론이다. 즉 서양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문동종'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주장한 것이다. 타루이는 그 방법으로 서구식의 연방제도에 주목하여, 혈통주의와 운명공동체론을 제시하면서 '병력이나 압제'가 아닌 평화적 방식을 통하여 일본이 한국을 '합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칭을 '대동'으로 정하였다. 청국에 대해서는 만주족에 의한 이민족 지배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청국의 지배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황인종이 패권을 장악하는 세계 전략의 구상을 제시하였는데, 일제 말 대동아 공영권의 모태가 된 구상이다. 김경일·강창일은 타루이의 『대동합방론』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동양의 패권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비전론적인 침략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⁴⁾

결국 『혈의 누』에서 인용 ①의 구완서의 발언은 작가 이인직이 『대동합방론』속의 일제 주도의 연방제를 지향한 것이냐의 문제가 된다.²⁵⁾

서사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군 승리의 축소 구성이나 일본군 횡포의 축소 구성에서 보듯이, 일본에

24) 김경일·강창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 1870 ~ 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호, 역사학연구소, 2000, 281-286쪽 참고.

25) 최중순은 애국계몽기엔, 독일을 연방국으로 통일한 비스마르크를 염원했다고 하며, 친일적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중순, 같은 논문, 117쪽

대해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한 작가가 갑자기 일본의 대한제국 합방론이나 다름없는 타루이 이론 속의 연방제를 주창했다는 것은, 독자의 호응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박노자의 아시아주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구한말 지식인들이 아시아주의 담론을 타루이의 『대동합방론』의 원 주장과는 다르게 글자 그대로 삼국 공영(三國共榮)으로 수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아시아주의는 서양의 황화론(黃禍論)에서 촉발되어 타루이 이전, 1880년대 초에 김옥균·박영효 등이 동아시아 삼국이 연합해서 러시아·백인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정치적 담론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고, 또한 러일전쟁 이후에도 이 아시아주의의 영향으로 장지연이나 안중근까지도 일본의 호의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주장은 애국계몽기 신채호가 1909년에 이르러서야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이란 논설로 아시아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것을 보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²⁷⁾ 또한 유림 출신 유원표가 한문소설 『몽견제갈량(夢見諸葛亮)』에서 밀아자 선생을 내세워 제갈량과 문답하는 형식으로, 삼국 공영의 희망을 표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⁸⁾

그렇다면 1906년 당시 한국 지식인 상당수가 타루이의 대동합방론에서 일본의 합방 야욕을 읽고 경계심을 가지기 보다는, 한·일·중이 연대하여 서구 세력을 물리치면, 글자 그대로 삼국이 공영할 수 있다는 기대를 지니면서, 일본에 대한 터무니 없는 허상(虛像)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텍스트에서 인용 ①의 구완서의 '연방도' 발언은 작가가 타루이 토키치의 주장인 일본 중심의 연방제 즉 한국 합방론에 동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일전쟁 이후 십 년간의 대한제국의 정치 상황은 글자 그대로의 삼국 공영론, 즉 삼국의 연대와 공영을 기대하는 상태라고, 작가로서 현실적인 정황을 기록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 ②는 지난 십 년간의 희망이 틀렸다는, 작가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희망이 냉소로 바뀐 원인에 대해 작가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인용 ②는 삼국 공영을 희망하는 아시아주의 담론이 결코 희망이 될 수 없고, 국난도 모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문학적 메타포로서, 그 이유를 전제왕권 체제의 관료의 부패와 무능으로 빚어진 '야만과 용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작가 이인직의 시국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26)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217-219, 360-362쪽 참고.

27)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8일-10일,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편, 『단재 신채호전집』(개정판) 하, 형설출판사, 1995, 88-91쪽

28) 정환국에 의하면 유원표는 대동합방론을 유지한 채, 무너져가고 있었던 '과거의 제국' 청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지만, 실망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는, 1907년 6월 <대한매일신보>에서 밀아자 문답을 끝냈다고 한다. 그는 유원표가 타루이 토기치가 쓴 대동합방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으로 내렸다.-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대외인식의 단상 - [몽견제갈량]의 경우』, 『민족문학사 연구』 23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209-218쪽 참고

왜냐하면 부패 관료를 비난하는 직설적인 서술이 이인직 신소설의 특징이고, 『혈의 누』에서도 평양 감사의 부패상을 '평양 선화당에 앉은 염라대왕'(텍스트 19쪽)으로 풍자하고, 막동이가 "난리가 나도 양반의 탓이 올시다." (텍스트 34쪽)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부패의 근본 원인은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이 누적되어서 국가 재정 기반의 붕괴가 가속화된 데다가, 궁중과 중앙 집권층의 매관매직, 향반 사회의 경제적 몰락으로 지방관 견제나 탄핵의 부재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부패 관료와 무능한 정치에 대한 비판은 반(反)봉건사상이 된다.³⁰⁾ 결국 실질적인 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보호국이 된 대한제국의 전제 왕권 체제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만과 용렬'의 주체는 광무 시대의 무능하고 부패한 전제 왕권과 관료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성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백성의 수난과 자각의 서사 구성을 한 이유가 구완서와 옥련이 같은 백성의 신교육에 희망을 건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분위해서이기 때문이다. 『혈의 누』의 서사 구성으로 볼 때 '백성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인직이 "민족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평가³¹⁾는 지나친 감이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주의 담론 축소 구성은 청일전쟁의 결과를 요약 보고하려는 작가의 발언이긴 하지만, 러일전쟁 직후의 조선의 정치 상황이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정치적 발언을 당대 독자에게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려는 문학적 기록의 결과로서, 명확하지 못한 작가 메시지가 되었다.

29) 기무라 간의 저서를 참고로 한다면, 조선 후기 별열가문의 과거(科擧) 독점으로 중앙 정치에 소외되던 향반이 조선말 경제적으로도 몰락하면서 지방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위를 상실했고 정부도 지방 통제권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구한말 과도한 군사력 확대가 재정 위기를 심화했다고 할 수 있다. - 기무라 간, (김세덕 역),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소국의식-조공국에서 국민국가로』, 산치럼, 2007, 90-94, 173-180, 201쪽 참고.

30)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243쪽 참고.

31) 김재용 이상용 오성호 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86-05쪽 참고

3. ‘일청전쟁’과 서사적 거리

이상 고찰한 바에 의하면 『혈의 누』는 작가가 청일전쟁을 국난(國難)의 시작으로 보면서 그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을 형상화하여, 신교육을 통한 백성의 성장만이 당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제시한 신소설이다. 그래서 이인직이 『혈의 누』에서 동아시아 정치의 중심이 청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하였다는 의미로 ‘일청전쟁’으로 부르고, 일본이나 서구 지향적인 문명개화론을 주장하며, 국난을 초래한 부패 관료층을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발언이 된다.³²⁾

그러나 『혈의 누』의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내용적으로 볼 때 근대계몽기의 계몽 담론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의 유학 목적지도 일찍 개국(開國)하여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거나, 근대 강대국인 미국이었다.³³⁾ 이런 연유로 텍스트의 김관일·옥련이, 구완서 등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하게 된 것이다.³⁴⁾

그러므로 『혈의 누』의 서사 구성의 특징을 활용하여, 작가가 당시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현실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반영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서사적 거리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요약하여 텍스트의 특성에 대해 결론지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청일전쟁이 서사의 발단이자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서는 전황에 대해 지면의 비중을 줄이면서 요약 서술하는 축소 구성으로 반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실체나 군사력에 관한 경각심을 제공하는 데에 무척 소극적이었다. 그렇다면 청일전쟁의 진행 상황과 일본군의 우세한 전황을 축소 구성하여 서사적 거리를 형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신교육을 자강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계몽 담론의 효과적인 전달을 중시한 구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작가가 청일전쟁의 전모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형상화하는 데서 드러날 본격적인 정치적 발언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즉 이인직이 러일전쟁 이후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청일전쟁보다 더한 국난으로 보았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텍스트에서 한·중·일 삼국의 연대와 공영을 바란 구완서의 ‘연방도’ 발언을 냉소하는 자세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인직이 보건대 대한제국은 청일전쟁 후 십 년 동안 개혁을 실현하지 못해 진보하기는커녕, 부패하고 무

32) 김윤식은 이인직이 일본의 정치 소설인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 『설중매(雪中梅)』, 『경국미담(經國美談)』의 작가를 본받으려고 했으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이 이미 해체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서 일본 같은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정치 소설 대신 현실적으로 정치 소설의 결여 형태인 『혈의 누』를 썼다고 보았다. - 김윤식, 『정치 소설의 결여 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근대소설사 연구』, 을유문화사, 1986 30-31쪽.

33) 대한제국 정부에서도 일본에 관비 유학생을 보내었으며, 청국의 일본 유학생 수는 1905년경엔 일만 명을 돌파하여, 와세다(早稻田) 대학엔 청국 유학생 특별반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한다. - 김윤식, 위의 책, 23쪽.

34) 일본과 서구에의 공간 확대를 『혈의 누』의 한계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년 89쪽; 최성민, 『공간의 인식과 식민 담론』,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6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 4, 205-206쪽 참고.

능하여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외교뿐 아니라 모든 내정 간섭을 하는 이 마당에, 일본 국력의 강세함을 알리고, 정부와 인민이 결집하여 힘을 키우라고 요구하기에는, 국력의 열세가 너무 심각하여 힘들다고 본 것이다. 진정한 작가로서 당대를 충실하게 기록하려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이 불가피하지만, 국난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을 작가가 회피한 것으로부터 이러한 서사적 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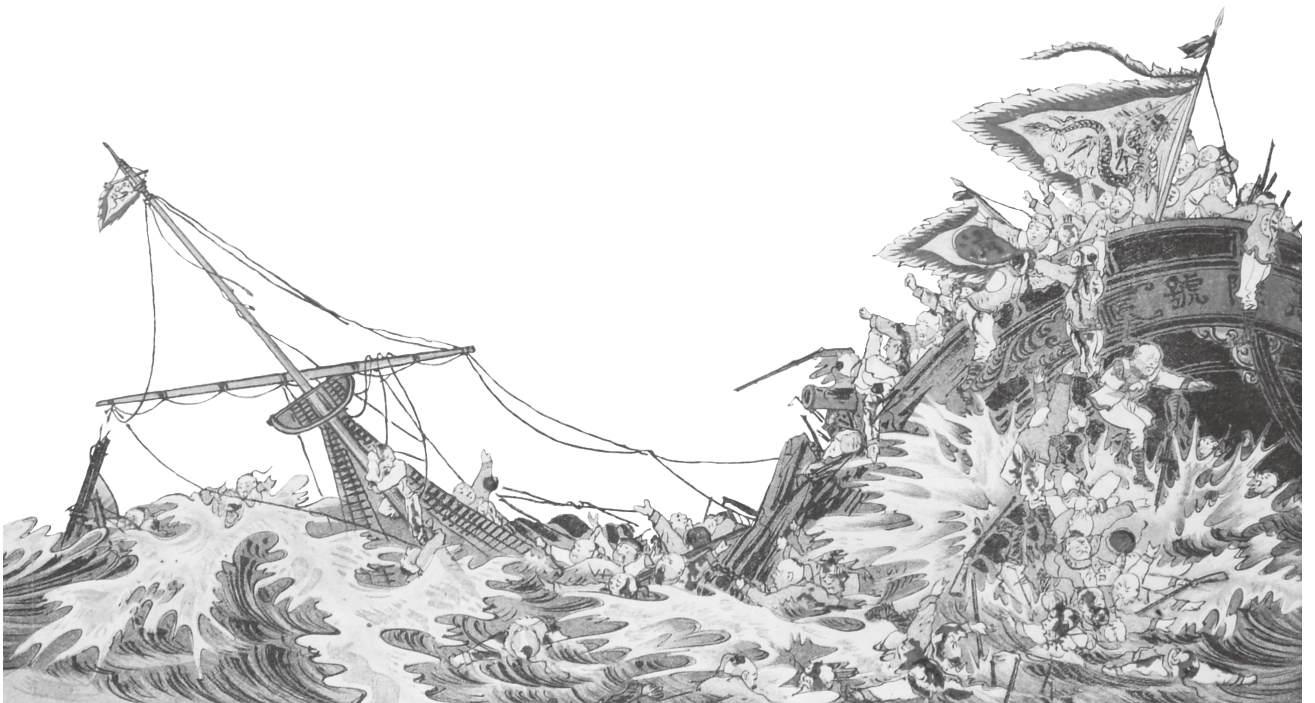
그래서 전황 축소 구성 등의 서사적 거리는 이인직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지만, 다르게 본다면 강국(強國) 일본,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실상을 알려 저항을 유도하면, 오히려 희생만 유발한다고 생각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인직의 소극적인 작가의식은 약소국은 강국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을 과도하게 수용한 지식인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고,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두려운 일본'에 사로잡힌 친일 지식인의 한계로도 볼 수 있다. 또 이런 서사적 거리의 문제점이 『혈의 누』를 진정한 정치소설로도 자리매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작가가 『혈의 누』에서 정치적 현실 상황과 정치적 발언에 대해 이러한 서사적 거리를 설정한 덕분에 백성의 수난과 국민 자각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텍스트에서 구완서와 옥련이를 통해 보여준 신교육론은 백성의 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성장을 촉구하여, 양반·관료 중심의 계급의식을 뛰어넘는 진정성을 보여 주었고, 이런 진정성이 당대 독자들에게 관념적이고 설교조의 신문 기사·논설을 뛰어넘는 벅찬 감동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감동이 백성이 국민으로 자각하는 국민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며, 후에는 3·1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혈의 누』는 근대계몽기가 요구한 문학적 소명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진순신의 『청일전쟁』이 보여주는 중국의 회한과 조선인식

은 정 태(역사문제연구소)



진순신의 『청일전쟁』이 보여주는 중국의 회한과 조선인식

은 정 태(역사문제연구소)

陳舜臣과 『청일전쟁』

청국이 대조선정책을 통해 추구한 것은 무엇일까?

청국은 왜 개전했을까?

왜 전쟁에서 청국은 패했을까?

청국의 조선독립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처리되었나?

21세기 중국의 청일전쟁 반성과 한국, 동아시아

청일전쟁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호칭은 다르다.(청일전쟁과 日淸之役, 그리고 中日甲午戰爭) 각국의 이해와 관행이 담겨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청일전쟁을 '1차중일전쟁'으로 1937년 이후의 '2차 중일전쟁'이라 함으로써 청일전쟁의 합의를 일본의 침략과 중국의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시야를 뚜렷이 견지하고 있다. 이런 시선에서 일제시기 독립운동이라는 항일연대라는 인식틀이 가능해졌다. 그 흐름은 오늘날 일본의 역사재해석 흐름에 맞선 한중의 공동대응과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은 단순히 반일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조선정부로서는 청국의 속방화정책에 따른 심각한 '독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조선정부는 청일 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적인 질문을 받았고, 이에 답변하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상황이었다. 같은 상황은 1904년에 반복되었다. 청일전쟁은 왜 일어났고, 이 가운데 중국의 동아시아, 혹은 조선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약간의 질문과 답을 진순신의 소설 『청일전쟁』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청일전쟁에 대한 그 어떤 글보다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었고, 또 방대한 사료를 구사하였으며, 또 많은 빈 공간을 논리적 상상력으로 채운 책이었다. 소설의 구성에 따라 전쟁의 배경과 전쟁의 경과 및 처리과정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당시 역사상과 대비하여 살펴보려 한다.

陳舜臣과 『청일전쟁』

진순신은 1924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2015년 1월에 사망했다. 조부代에 고베로 이주해왔다고 한다. 대만 국적으로 1990년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1973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했고 1989년 천안문사건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1990년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대만국적을 동시에 보유했다. 일본에서 생활했으나 화교로서 중국정체성을 유지했다. 1967년 『아편전쟁』 이후 일본에서 '중국역사소설' 장르를 확립했다. 『秘本 삼국지』(1977)를 통해서는 그동안 악역 조조에 대한 평가를 바꾸었다고 한다. 『소설 마르코폴로』(1979), 『소설 일청전쟁』(1981), 『태평천국』(1982), 『소설 십팔사략』(1983), 『태평천국』(1982), 『유구의 바람』(1993), 『칭기즈 칸의 일족』(1997) 등 많은 저작이 있다.

진순신의 『청일전쟁』의 원제는 『강은 흐르지 않고, 소설 일청전쟁 江は流れず-小説日清戦争』(1981, 중앙공론사)이다. 한국에서 1983년에 『강은 흐르지 않고』(조양욱, 마당)와 『(역사소설) 청일전쟁』(이영신, 한국방송사업단)으로 각각 번역 출간되었고, 1986년, 1995년, 2006년 거듭해서 출간되었다. 그 인기를 반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甲午战争』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대체로 주로 중국측의 입장에서, 여기다 조선과 일본의 관점을 더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이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을 당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라는 시각에서 청일전쟁을 접근하고 있던 한국 학계를 생각하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물론 당시 동아시아3국의 근대국제정치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이미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다. 진순신은 『청일전쟁』 집필을 위해 대만의 당안사료와 야사를 적극 이용했다고 하였다.

『청일전쟁』은 1882년부터 1895년까지 14년의 역사를 다루었다. 청일전쟁의 시대적 배경, 조선의 김옥균, 청국의 원세개와 이홍장, 그리고 일본의 陸奥宗光배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국제정세에 따라 청일전쟁 발발의 군사적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분량은 청일전쟁 발발 전까지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3분의 1이다.

< 목차 >

- | | | |
|------------|-------------|-------------|
| 1. 제독과 청년 | 2. 대원군 체포되다 | 3. 난이 스쳐간 후 |
| 4. 급박해진 사태 | 5. 전야 | 6. 불길이 오르다 |
| 7. 봉괴 | 8. 귀향 | 9. 복귀의 날 |
| 10. 새로운 국면 | 11. 인내천 | 12. 자주길의 길 |
| 13. 북양인 | 14. 허허실실 | 15. 파탄 |
| 16. 방곡령 여파 | 17. 망명 9년 | 18. 암살 |

- | | | |
|---------------|----------------|-------------------|
| 19. 송환 | 20. 동학궤거 | 21.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
| 22. 구우왕래 | 23. 산 위에 내리는 비 | 24. 바람은 불어오고 |
| 25. 진주 | 26. 외국의 개입 | 27. 청년 떠나가다 |
| 28. 제자리걸음 | 29. 해륙의 서전 | 30. 북상군 |
| 31. 평양을 떠나다 | 32. 연기도 보이지 않고 | 33. 다음을 목표로 |
| 34. 벌납기를 꺾다 | 35. 여순 함락 | 36. 동학, 붕괴되다 |
| 37. 사절 추방 | 38. 춘범루 | 39. 리홍장 저격 |
| 40. 종막 그리고 개시 | | |

이 가운데 김옥균 암살을 두고 청일 양국의 속내를 드러낸 흥미로운 대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추측이 맞다고 해도 두 사람의 생각이 각각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홍장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의 강화를 노려 조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실제로 부여 주려고 했을 것이다. 김옥균의 유해가 일본으로 송환된다고 하면, '뭐야! 청국은. 항상 조선을 '속국'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국의 모반인이 자기 나라에서 살해되었는데도 그 시체를 일본으로 인도했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라는 얘기로 권위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의 요청을 들어 유해를 조선으로 송환시켜야만 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노우에 가오루 편이 리홍장보다 한 수 위였는지도 모른다. 각종 정보, 군사 정탐의 보고 등에서 일본의 군비가 청국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다. (중략) 이미 일본은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여 모든 계층에서 징병하고 있었다. 군인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데는 전 국민적인 적개심을 군사들의 배후에 집결시킨 후 그것을 터뜨리게 한다. 그러한 때 일본에 10년 가까이 망명하고 있던 김옥균이 청국에서 살해당했다. 유해를 정중히 일본으로 옮겨온다면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어울리지 않는다.

'놈들이 김옥균의 시체까지 빼앗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상황이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훨씬 유리했다. 김옥균은 사실상 일본에게는 짐이었다. 그래서 냉담하게 대했지 않은가?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만 일본에서 죽는다면 외교 문제상 어렵게 된다. 청국으로서는 우선 친청의 자세를 보이는 현 조선 정권의 모반인이므로 김옥균은 죽이고 싶은 인물이다. 비록 일본 정부로부터는 냉대받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고, '친일파'라고도 불린다. 청국으로 보면 김옥균이 언젠가 친일 내각을 만들려고 할 것이므로 곤란하다. 죽여버리는 편이 좋다. 김옥균을 죽이려는 것도, 유해를 놓고 벌이는 처치 문제도, 청일 양국은 동상이몽이었다."

인상적인 해석이다. 김옥균의 죽음과 그 시신 처리를 두고 대국의 체면유지를 위해 그리고 전쟁발발의 방아쇠로 활용하려는 양국의 상이한 태도. 물론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나 근거없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필자

는 또 김옥균이 이홍장을 만나러 상해에 가기보다는 당시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을 만나야했다는 지적도 했다. 김옥균의 정신세계에 전봉준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러한 의문과 아쉬움은 많은 연구자들의 생각과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살펴볼 다양한 주제들을 모아보았다.

청국이 대조선정책을 통해 추구한 것은 무엇일까?

개항 초기 조선과 청국은 상호의 필요에 따라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끌어당겨다 썼다. 19세기 이양선 출몰과 서구와의 접촉, 신미양요, 병인양요, 강화도조약까지도 조선은 '人臣無外交' 논리를 가져와 서양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혹은 청국의 도움을 받으려했다. 반면, 청국은 도리어 '조선이 조공국이나 내치와 외교는 자주한다(朝鮮雖臣服中國, 其本處一切政教禁令, 概由該國自行專主 中國向不與聞)'는 논리로 조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은 청국의 적극적인 조선개입 정책으로의 전환 결과 후자의 논리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규정되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이은 속방조회문에서 "자주는 가하나 독립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조선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안보와 내치외교의 자주공간을 보장받다는 의미였지만, '조선은 독립국인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기에 이른다. 물론 청국도 자신들의 대조선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니는 모순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청국의 대조선정책은 내외정 개입을 통한 '조선속방화정책'이었다. 전선, 무기, 차관, 해관, 외교사절 파견 등 이 시기 개화자강정책 추진 핵심 영역에 걸쳐 있었다. 여기다 임오군란 직후에는 군사 3천명을 주둔시켰고, 실상 그들의 관심은 '以維藩屬 而擴利權'에 있음을 스스로 밝혔기도 했다. 갑신정변 후에 양군이 철수했지만, 청국은 북양육군을 봉황성으로 전진 배치하고, 인천에 해군기지를, 그리고 서로전선을 가설하였다. 무역에서도 청국상인들은 일본상인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였다. 청국으로부터의 차관액은 38만 5천량(일본차관은 13만원)이었다. 동시에 청국은 영국, 러시아와 일본과의 타협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청국의 주도권을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청국은 이를 통해 속방질서의 유지와 함께 동북지역의 안정을 꾀하였다. 그들의 조선정책의 선두에는 바로 원세개와 북양아문대신 이홍장이 있었다.

이러한 구도가 1890년대 들어 일본의 주도로 무너졌다. 일본은 메이지헌법으로 상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두

고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다. 물론 청국도 양무운동을 통한 성과에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이 넘쳐있었다. 곧 청국의 조선속방화 정책과 일본의 조선보호국화정책의 충돌이었다.

청국은 왜 개전했을까? - 인식기반

전인영은 "중국의 屬邦이나 政敎와 禁令은 자주적으로 행하는"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1879년부터 청일전쟁까지는 반식민지화 대상국으로 조선을 인식했다고 보았다. 속방정책의 내용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청일전쟁 직전 청국의 개전 동기 중에는 그들의 조선인식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대국의식과 우월감

청 정부의 핵심인사들은 메이지유신 이후 변화된 일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쟁 전까지는 일본이 중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대비되는 중국의 허황된 우월 의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예들은 당시 청국의 유력 일간지 『申報』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전직전에는,

"우리 위풍당당한 天朝는 땅이 드넓고 백성이 많으며, 재물과 조세가 풍부하고 군사력이 강하다. 너희보다 열배가 되는데도 너희는 자신들의 힘을 헤아리지 않은 채, 쉽게 병사를 일으켰는데, 이는 大小之勢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본래 난장이처럼 왜소하여 키가 4척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 중국인의 우람한 신체와 위풍당당한 풍채와는 다르다"

이러한 흐름은 종전을 앞두고서도 바뀌지 않았다.

"5대주를 합쳐논하더라도 중국은 강대국이다. 5대주 중의 강대국을 동해의 조그만 섬나라와 서로 비교해보면, 너무 보잘것없어 비교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된다. 광활한 국토, 많은 백성, 풍부한 자원이 어찌 왜놈에 비해 열배, 백배 뿐이라?"

2) 명분과 결합된 '關門'의 조선관, 脣亡齒寒

"고려는 중국의 속국으로 불침불반하며, 철마다 조공하고 역사가 끊이지 않게 기록한지 2백여년에 이른다. 중국은 고려를 아들처럼 여기고, 고려는 중국 조정을 아버지처럼 여겼다. 평소에는 고관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아들이 일상 중에 아프게 되면 아버지가 음식을 먹여주고 간호해주는 것과 같다. 동란이 발생했으나 고려 스스로 평정할 수 없게 되자, 중국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것은 병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 것과 같다. 중국은 고려에 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사를 파견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를 보내 돌보게 한 것과 같다. 남이 라면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아이에게 병이 있는 것을 틈타 다른 사람이 함부로 군다면, 그로 인해 아버지는 화가 끓어오르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희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연의 이치로, 고려의 일은 이와 같지 않음이 없다. 일본 사람들이 고려를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너무 못살게 괴롭히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중국은 그저 앉아서 바라만 볼 뿐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인가?"

"고려 일국의 영토는 비록 작으나, 형세를 말하자면, 실로 중국의 율타리이면서 일본의 율타리가 된다. 저들은 옆에서 호시탐탐 오랫동안 기회를 노렸고 이미 별의별 공리를 짜내 목적으로 이루기를 희망하였다. 중일 양국은 서로 밀접한 관계, 脣亡齒寒의 관계를 마땅히 고려해야 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서로 국교를 공고히 하여, 상대에 대한 속임이 없어야 하며, 유사시에는 함께 협력하여 외국의 침략과 압박에 항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우애야 고려가 안정되고 고려가 안정되어야 동방의 전체 정세가 보장될 수 있다."

3) 조선의 청국관

* 조선의 청병 출병 요청

* 대원군이 8월 28일 평양 주둔 청군에게 보낸 편지

"지금 종사의 안위가 일시에 위급해져서 날마다 天師의 東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듣건대 대부대가 연이어 출정하였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다시 소생할 때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국은 일본에 붙어 매국하는 무리들을 일소하시어 하루 속히 焦眉之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피눈물로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 청일전쟁은 우리 땅에서 일어난 그들간의 전쟁, 소외당한 '조선'의 운명을 결정한 전쟁

왜 전쟁에서 청국은 패했을까?

청일전쟁을 두고 양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의 대비와 운용은 많은 논쟁을 던져주었다. 청불전쟁 패전 후 청국은 해군에 엄청난 투자를 하여 재정비에 나섰다. 1995년 청국은 定遠號와 鎮遠號 라는 두 척의 7천톤급 세계 일류의 철갑선을 구매했다. 철갑전함, 순양패선, 포정, 어뢰정 등을 꾸준히 구매했으며, 서양인 전문가를 통해 수병들을 엄격히 훈련시켰다. 1888년 북양함대의 위용은 『北洋海軍章程』¹⁾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놀란 일본은 해군공채 1,700만원을 확보하고 실전경험을 쌓고 해군대학을 만들고 해군력을 증강시켰다. 반면 중국은 더 이상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양함대 주요 전선의 평균마력은 일본함대에 비해 1,850마력 적었으며, 평균시속은 1해리정도 늦었다. 평균 군함의 연령도 일본함대보다 2년 길었다. 근대적 함정의 무력은 주로 배에 실린 화포에서 결정되는데, 전체적으로 북양함대는 중포와 기관포 방면에서 우세했으며, 일본함대는 경포와 속사포 방면에서 우세를 점하였다. 일본함대는 전형적인 기동전술을 펴서 함대를 둘로 나뉘어 효율적인 해전을 펼친 반면, 중국 측은 해전 경험의 부재로 인해 작전전술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

전쟁직전 영국 해군부의 '청일군사역량대비 비망록'(1894년 7월, 영국해군부 → 영국 외교부)의 글도 이와 비슷했다.

"일련의 군함 장비 인원의 숫자를 보면...청일 양국 해군의 실력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의 함대편제는 매우 단순하며 일본해군은 진정한 제국 해군으로 함대편제가 완전히 서방 해군의 편지를 모방하였다. 일본 군함의 모든 수병과 대부분의 군관은 모두 서방의 훈련방식으로 배양되었다. 일본 군함은 여러차례 원거리 出海를 했고, 군관 모두 효율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 외국 해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양인 고문이 떠난 이후부터 중국함대의 효율이 극 떨어졌다고 본다. 톤수나 대포문수나 중국이 일본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더라도 편제 규율 훈련에서 일본은 중국보다 크게 앞선다. 따라서 일본해군 역량은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1) 「船制」「官制」「昇擢」「考校」「俸餉」「恤賞」「儀制」「鈴制」「軍規」「簡閱」「武略」「水師後路各局」등으로 구성. 이것은 주로 영국해군의 방법을 참조하고 독일해군이나 중국의 옛 제제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기초작업에 참가한 인물은 周馥·丁汝昌·林泰曾·劉步蟾·羅豐祿 등이며, 주복이 편집했다고 한다.

청국의 조선독립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처리되었나?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직전까지 이홍장은 조선을 버릴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청국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최종안이 아니라 청일 양국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시모노세키조약 후 청일전쟁 발발 직후 폐기되었던 조청관계의 재구축을 위해서도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이 요구되었지만, 청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조선을 대등한 국가로 간주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로 정리되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둔 카이로 선언에서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강제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그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바로 청일전쟁 이전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는 것이고, 이 논리는 과거 조청관계를 20세기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실제 1945년 해방 직전에 장개석 정부는 한국의 치안 및 경제 등을 장악하고 행정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구상을 하였다. 물론 곧 이은 전쟁과 냉전으로 인해 이 논의와 시각은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말 한중외교관계 수립과 갈등, 중국의 부상과 미일의 경제위기, 혹은 최근의 미일동맹 강화와 미국의 아시아전략 등과 맞물려 새로운 한중관계 정립을 환기시키고 있다.

21세기 중국의 청일전쟁 반성과 한국, 동아시아

청일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마지막 해전으로는 위해위 해전이 있다. 1895년 1월 20일 일본의 산동작전군과 연합함대는 산둥반도 동쪽의 榮成灣에 상륙해 영성현성을 점령하고 위해를 공격하였다. 격렬한 전투 끝에 2월 2일쯤 위해주변 남북의 포대들이 모두 함락되었다. 위해만 앞바다의 劉公島를 기지로 삼고 있던 북양해군은 일본군으로부터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2월 4일부터 어뢰정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북양함대의 자량 정원호가 피격되었다. 정원호는 워낙 큰 배라 금방 침몰하지는 않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해안가에 정박시킨 후 함포만을 사용하였다. 일본 어뢰정의 공격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來遠호와 威遠호 등도 격침되었다. 1895년 2월 11일 밤 정원호의 포탄 저장고가 바닥이 나자 정여창은 정원호를 자폭시켰으며, 자신은 대량의 아편을 먹고 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을 숨긴 채 나머지 지휘관들은 일본군에 항복하

였다. 북양함대의 남은 함선인 진원 제원 평원 광병 진동 진서 진남 진북 진중 진변 등이 모두 일본군에 넘겨졌고, 연습선 康濟호만이 항복한 청군과 외국인을 운송하기 위해 남겨졌다.

중국은 청일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유공도에 기념박물관을 건립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다. 근대중국의 청일전쟁에 대한 반성의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얼마전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대국굴기'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다시 주변의 諸國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곤란하고 더 나아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제17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청일전쟁^{淸日戰爭}과 그 문화적 표상^{表象}

발 행 일 2015. 6. 5

발 행 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조 우 성

발 행 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032.440.6750

<http://museum.incheon.go.kr>

북디자인 아이드디자인